

# 해외 보험동향 2020년 봄호

| 총괄 김석영 (선임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이소양 (연구원)  
이아름 (연구원)  
이규성 (연구원)  
손민숙 (연구원)



# ■ 목차

---

## I. 해외 보험산업 이슈

1.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규 법안 발효 / 1
2. 일본 골수 기증자 보장상품 판매 / 4
3. 호주 개인소득보상보험 수익률 악화 / 6
4. 호주 생명보험 판매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 / 8

## II. 해외 보험산업 현황

1. 미국 사이버보험 / 11
2. 일본 지진보험 / 14
3. 일본 소액단기보험 / 16
4. 대만 외화보험 / 18
5. 대만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험 / 22

[특집] 영국 보험산업 핵심 요약

[특집] 해외 판매채널: 영국편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

# I. 해외 보험산업 이슈

---

## 1.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규 법안 발효<sup>1)</sup>

### 가. 자동차 보험

■ 미국 자동차 보험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대신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됨<sup>2)</sup>

- Assembly Bill 1538은 자동차 충돌 보장 중 수리비용 지불 관련 법안으로 기존 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충돌 또는 차량 파손 시 명시된 항목에만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를 수리하도록 선택함
- 반면 개정안의 경우, 소비자는 종합보험 대신 자동차 차체보험만 가입하여도 되고, 가입자는 자동차 정비소 또는 다른 수리 시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아도 됨
- 동 법안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됨

■ 캘리포니아의 저비용 자동차보험(CLCA: California's Low Cost Automobile)은 2020년 1월 1일까지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 1일로 연장되었으며, 부양가족과 동일한 주소에 같이 살고 있는 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됨<sup>3)</sup>

---

1)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2020. 1. 2), "2020 brings greater protections for insurance consumers as new laws go into effect"

2) 국회의원 Shirley Weber의 Assembly Bill 1538

3) 상원의원 Susan Rubio의 Senate Bill 570

- CLCA 보험은<sup>4)</sup> 주 보조(State-sponsored) 보험으로 좋은 운전습관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음
- 개정된 Senate Bill 570에 따르면, 16~24세의 미혼자, 3년 이하의 운전기간, 연소득이 연방빈곤수준의 250% 이상이어야 함
- CLCA 보험은 신규 보험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나. 펫보험

- 펫보험의 신규 법안은 신계약 건수회사에게 제외되는 보험 내역, 가입기간, 자기분담금, 공동보험 등 특정 정보를 보험소비자에게 밝히도록 함에 따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sup>5)</sup>
- 개정된 Assembly Bill 1535에 따라, 펫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증권을 가입자에게 보낼 때, 언더라이팅 보험회사, 대리인 또는 브로커, 주 정부 보험과의 연락정보 등을 볼드체·글자 사이즈 12로 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또한 동 법안은 펫보험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상호소통을 간소화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또는 불만 등을 회피하기 위해 브랜드 이름을 혼동시키는 것을 막음

## 다. 건강 및 장기 보험 외 기타 보험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규 법안이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Unclaimed Life Insurance and Annuities Act의 개정안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찾아야 하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합한 보험청구 서류 또는 설명을 제공해야 함<sup>6)</sup>
  - Senate Bill 740은 미청구된 생명보험 관련 법안으로, 기존 법안의 경우, 생명보험 또는 연금 펀드가 미청구되거나 미지급이 3년이 넘을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음

4) CLCA 보험을 가입하려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소득조건이 가이드라인과 맞아야 하고, 자동차 가격이 25백 달러 이하, 최소 16세 이상이며 좋은 운전 습관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5) 국회의원 Wendy Carrillo의 Assembly Bill 1535

6) 상원의원 Holly Mitchell의 Senate Bill 740

○ Senate Bill 508은 주거재산보험(Residential Property Insurance)<sup>7)</sup> 관련 법안으로, 기존 법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주거재산보험 공시(Disclosure Statement)를 제공할 시 무담보내역,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내용 등 소비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거재산보험 권리장전(Bill of Rights)도 함께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필수요건은 이동주택 소유자 보험, 콘도 소유자 보험, 임대주택 거주자 보험 등의 상품 등에는 해당되지 않았음

- 반면, 개정안에 따라 이동주택 소유자 보험, 콘도 소유자 보험, 임대주택 거주자 보험 등의 상품을 가입할 때에도 보험회사가 주거재산보험 권리장전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보험회사는 2020년 7월 1일 이후로 만료되는 주택보험의 경우, 주택보험이 비갱신될 때 보험소비자에게 75일 전에 알려주어야 함<sup>8)</sup>

○ Assembly Bill 1816의 기존 법안에 따르면, 특정한 보험상품을 제외하고는 보험상품의 만료일 최소 45일 전에 갱신이나 비갱신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똑같은 계약으로 유지하게 되었음

○ 반면, 개정안으로 인해 만료일 최소 75일 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비갱신될 경우, 주정부 보험과의 연락정보를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그들의 선택사항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됨

7) 주거재산보험은 주택과 개인 소장품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 내역 및 범위와 임대 또는 소유 여부에 따라 보험상품 종류가 달라짐. 주거재산보험상품으로는 주택소유자보험(Homeowners Insurance), 주거보험(Dwelling Insurance), 콘도보험(Condominium Insurance), 세입자보험(Tenant/Renters Insurance) 등이 있음

8) 국회의원 Tom Daly의 Assembly Bill 1816

## 2. 일본 골수 기증자 보장상품 판매

- 일본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골수 기증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 수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24개사임
  - 골수 기증자 보장상품은 보험계약자인 기증자가 타인에게 골수 제공을 목적으로 골수 채취 시술 등을 받을 경우 수술 및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제3보험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임

〈표 1〉 일본의 골수 기증자 의료비 보장상품 개발 현황

(단위: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주계약 수	특약상품 수
24개	3개사	29개	13개

자료: 小林直人(2019), "骨髓提供者に対する保障を提供する保険商品", ニッセイ基礎研究所

- 일본에서 종전까지 골수 기증자의 골수 채취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법규상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음
  - 일본에서 백혈병 등 혈액 난치성 환자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경우 골수 기증자의 골수 채취시술 및 입원 등 의료비를 골수 이익을 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골수 이식을 받은 환자는 본인의 골수 이식 비용과 골수 기증자의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임
- 이에 금융청은 골수 이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기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골수 기증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하도록 법규를 개정함
  - 2005년 3월에 개정된 보험업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제3보험 상품의 보험사고 범위를 종전의 '질병, 상해, 간병 등의 원인'에 추가하여 '골수 제공 및 이를 원인으로 하는 신체 상태'를 신설하였음

〈표 2〉 보험업시행규칙(제4조) 개정 전후

개정 전(2005년 3월)	개정 후(2005년 4월)
제4조(질병 등의 사유) 법제3조 제4항 제2호 라* 에서 규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태 2. 고령으로 상시 간병 신체 상태 *제3보험에서 상해·질병과 유사한 상태	제4조(질병 등의 사유) 법제3조 제4항 제2호 라에서 규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태 2. 불임치료가 요구되는 상태(2019년 신설) 3. 고령으로 상시 간병이 요구되는 상태 4. 골수 제공과 이를 원인으로 한 상태(신설)

■ 일본 푸르덴셜생명은 기존에 판매 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개정하여 2005년 4월부터 기존 상품에서 골수 기증자 의료비 보장을 추가한 확장형 상품을 판매함

- 상품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 주계약 또는 각종 입원 관련 특약상품의 보장범위에 골수 채취시술 시 의료비 보장을 추가하여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계약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것임
- 주요 보장은 피보험자가 골수 줄기세포 채취시술을 받은 경우 하루당 입원급부금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술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임

■ 현재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동 상품의 특징은 의료보험상품에 동 보장 기능이 추가되어 판매되므로 기증자 의료비 보장을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골수 채취시술 급부금 제공 횟수를 1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라쿠텐생명과 같이 제한을 두지 않은 회사도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음<sup>9)</sup>
- 회사에 따라서 골수 채취 시 시술 또는 입원 급부 중에서 두 가지 보장을 모두 또는 하나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며, 보장책임은 보험상품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시작됨
- 최근에는 비건강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병자 간편심사형상품 형태로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소득보상보험 주계약에 부과할 수 있는 골수 기증자 의료비 보장 특약을 판매하고 있음

- 현재 손보재팬, 소니손해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도와손해보험 등이 판매하고 있음
  - 판매상품은 골수 채취시술과 입원 등으로 기증자가 휴업할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고, 골수 채취시술 1회당 수술급부금과 입원 시 질병 입원급부금을 제공함

9) 1회로 제한할 경우 상품에 따라 통상 1일당 입원급부금의 20배(5만~15만 엔) 또는 수술급부금 10~20만 엔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제공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1회당 5만 엔을 지급함

### 3. 호주 개인소득보상보험 수익률 악화<sup>10)</sup>

#### 가. 호주의 개인소득보상보험 수익 악화

■ 생명보험의 개인 판매채널에서 판매된 소득보상보험<sup>11)</sup>의 8년간(2011~2018년) 누적 당기 순손실은 19억 달러에 달함

- 단체보험 판매채널에 판매한 소득보상보험의 8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7,800만 달러임
- 사망보험, 영구장해보험, 질병장해보험의 판매채널별 누적 당기순이익은 개인보험 판매 채널 76억 달러, 단체보험 판매채널 9억 달러임

〈표 3〉 호주 판매채널과 상품별 당기순이익

(단위: AUD 백만)

구 분	개인보험 판매채널		단체보험 판매채널	
	일시금지급 보험	소득보상보험	일시금지급 보험	소득보상보험
2011	1,153	-116	168	-22
2012	1,034	17	97	-2
2013	625	38	-473	-12
2014	1,143	-598	102	-46
2015	1,112	-54	338	1
2016	877	-504	338	-43
2017	1,164	-160	254	189
2018	495	-567	94	12
누적	7,603	-1,943	918	78

주: 일시금지급 보험은 사망보험, 영구장해보험, 질병보험임  
자료: 호주 APRA

■ 소득보상보험의 손실은 주로 장기성 소득보상보험에 기인함

- 소득보상보험은 장기소득보상상품과 단기소득보상상품으로 구분되며, 장기소득보상상품은 근로복귀(최대 65세) 전까지 보장하고 단기소득보상은 보통 2년 정도까지 보장함
- 보장기간이 2년인 단기소득보상보험과 달리 장기소득보상보험은 근로복귀(최대 65세)

10) 호주건전성감독청(2019. 12. 2), "Sustainability measures for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1) 소득보상보험(IP: Income Protection)은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월납으로 지급하는 상품임. 소득보상보험은 장기소득보상상품과 단기소득보상상품으로 구분되며, 장기소득보상상품은 근로복귀(최대 65세) 전까지 보장하고 단기소득보상은 보통 2년 정도까지 보장함

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커지는 구조임

- 2018년 소득보상보험 가입금액은 월지급액 기준으로 270억 달러이지만 보험금 지급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 보험금은 4조8,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음

〈표 4〉 호주 보험상품 비교

(단위: AUD 10억, %)

구분	소득보상보험						사망보험	영구장해보험	질병보험
	1개월	1년	2년	5년	10년	15년			
보험가입금액	27	324	648	1,620	3,240	4,860	1,489	2,898	227
수입보험료	5	5	5	5	5	5	6.4	3.5	1.5

주: 1) 2018년 수입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기준임  
 2) 사망보험, 영구장해보험, 질병보험은 일시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소득보상보험은 월지급식임  
 자료: 호주 APRA

- 개인판매채널 소득보상보험의 손실은 제한 없는 담보범위에 기인함
  - 단체보험의 소득보상보험은 보험금 수준이 예를 들어 임금소득의 75%로 이미 결정되어 적용되는 데 반해 개인판매채널의 소득보상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금 수준을 선택할 수 있음
  - 높은 소득대체율의 보험금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소득대체율이 가입자의 직장으로 복귀할 동기부여를 낮춤

### 나. 개인소득보상보험에 대한 호주 금융당국의 조치

- 호주 금융당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소득보상보험 상품 구조 변경안을 공표함(2021년 7월부터 시행)
- 호주 APRA의 소득보상보험 상품구조 변경안에 의하면, 장기소득보상보험의 지급기간은 최대 5년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지급보장기간이 5년으로 축소될 경우 보험가입액은 최대 1조 6,200억 달러로 고정될 수 있음

- 소득보상보험의 담보범위를 보험계약자 소득의 75%로 제한함
  - 호주 금융당국은 기존 소득보상보험의 과도하게 높은 소득대체율이 가입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 2021년 7월 이후로 보험금 청구 후 6개월간은 소득대체율의 100%로 지급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소득대체율의 75% 수준으로 보험금 금액을 제한함
  - 호주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늘어날 경우 장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보험회사에게 요구함

#### 4. 호주 생명보험 판매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sup>12)</sup>

- 2020년부터 생명보험 판매자가 취하는 선취수수료(Uprfront Commission)의 한도가 초년도 보험료의 60%로 인하됨
  - 2017년 개정된 생명보험보수규정(Life Insurance Remuneration Arrangement)에 따라 보험 판매자의 선취수수료 한도가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음
    - 생명보험 판매자가 취하는 선취수수료의 한도는 초년도 보험료의 130%에서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감소함
-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취수수료를 환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Clawback Arrangement)을 도입함
  -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선취수수료 전액이 환수조치되고, 2년 이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선취수수료의 60%가 환수조치됨

12) Phil Anderson(2019. 11. 15), "Case Study of Life Insurance and Financial Advice Reform in Australia"

〈표 5〉 호주 생명보험 판매수수료(Commission) 변화

구분	제도 개정 전(2018년 이전)		제도 개정 후	
	선취수수료	유지수수료 (On-going)	선취수수료	유지수수료 (On-going)
선취수수료형 (Upfront)	초년도 보험료의 130%	갱신보험료의 10%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적용)	2018년: 초년도 보험료의 80%, 2019년: 초년도 보험료의 70%, 2020년: 초년도 보험료의 60%	갱신보험료의 20%
복합수수료형 (Hybrid)	초년도 보험료의 70%	갱신보험료의 20%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적용)		
분급형 (Level)	초년도 보험료의 30%	갱신보험료의 30%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적용)	개정 전 동일	개정 전 동일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미적용)

주: 분급형의 경우 개정 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판매실적연동 보너스 및 수수료 환수규정을 미적용함  
 자료: 안철경·정인영(2018. 11. 26), 「호주의 생명보험 수수료 정책과 시사점」

■ 호주 금융당국은 수수료 개편을 통해서 보험 해지율과 보험계약 승환율이 개선될 것을 기대함

- 호주 ASIC의 보고서<sup>13)</sup>에 따르면 과거의 높은 선취수수료율이 빈번한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계약 승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설계사의 수수료 체계와 보험상품해지율/보험계약 승환율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
  - 과거 높은 선취수수료 체계하에서 고객의 불만족 비중이 45%로 높음

■ 그러나 재무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선취수수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해지율과 보험계약승환 관행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무설계사가 답변한 2019년의 보험해지율과 보험계약 승환율은 각각 9%, 11%로 규정 시행 이전 2016년에 비해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선취수수료 개편제도로 수입감소 상황에 놓인 재무설계사가 보험소비자에게 고가의 보험 상품을 주로 권유할 것으로 보임

- 재무설계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연도 재무설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설계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13) ASIC(2014. 10), "Report 413: Review of Retail Life Insurance Advice"

- 수수료 개편 이전 2017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해당연도 상품판매 수입이 호전될 것이라 판단한 재무설계사는 전체 59%인 반면 2019년에는 30%의 설계사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함
  - 전년도보다 상품판매 수입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재무설계사는 2017년도에는 15%였지만 2019년에는 38%의 응답자가 상품판매 수입이 악화될 것으로 응답함
- 재무설계사는 규정 시행 전에 비해 고액 보험상품을 취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정 시행 전에는 재무설계사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 한 명당 보험상품의 보험가액은 평균 60만 달러라고 답변한 반면 규정 시행 이후에는 평균 103만 달러라고 답변함

---

## Ⅱ. 해외 보험산업 현황

---

### 1. 미국 사이버보험<sup>1)</sup>

#### 가. 사이버보험 현황

- 미국 기업들의 사이버보안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미국 보험회사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 서비스 및 사이버 보험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사이버보안 미흡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최근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서비스 시장의 다방면에서 사이버 위협이 존재함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청구자로부터 개인적인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 정보도 제공받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2018년 미국 보험회사의 사이버보험 총 원수보험료는 2017년 대비 5억 11백만 달러 증가한 35억 98백만 달러를 기록함(〈표 1〉 참고)<sup>2)</sup>
  - 2018년 사이버보험의 단독형 상품(Stand-alone)의 원수보험료는 2017년 대비 5억 56백만 달러 증가한 23억 15백만 달러를 기록함
    - 2018년 단독형 인가 보험회사는 전년 대비 1억 2천만 달러 증가한 11억 1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미인가 보험회사는 전년 대비 4억 36백만 달러 증가한 12억 1백만 달러를 기록함
  - 2018년 사이버보험의 특약형 상품(Package)의 원수보험료는 2017년 대비 45백만 달러 감소한 12억 83백만 달러를 기록함

---

1) NAIC(2019. 9. 12), "Report on the Cybersecurity Insurance and Identity Theft Coverage Supplement"

2) NAIC는 미국 보험회사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한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해 조사함

- 이는 2018년 인가 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 감소폭이 커서 전체적인 특약형 원수보험료는 감소함

〈표 1〉 미국 보험회사의 연도별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단독형 인가 보험회사	특약형 인가 보험회사	단독형 미인가 보험회사	특약형 미인가 보험회사	단독형 합계	특약형 합계	총 합계
2015	483	932	-	-	483	933	1,416
2016	811	864	552	153	1,363	1,020	2,383
2017	994	896	765	431	1,759	1,328	3,087
2018	1,114	915	1,201	368	2,315	1,283	3,598

자료: NAIC(2019. 9), "Report on the Cybersecurity Insurance and Identity Theft Coverage Supplement"

## 나. 담보별 현황

- 2018년 사이버보험의 단독형 상품을 판매한 미국 보험회사는 46개의 보험그룹(140개의 보험회사)이며, 원수보험료는 2017년 대비 12.02% 증가함
  - 상위 10개 보험회사가 원수보험료의 82.3%를 차지하였고, 상위 20개 보험회사가 원수보험료의 94.0%를 차지함(〈표 2〉 참고)
    - AXA 보험그룹과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3.0%, 20.9%를 차지하였으며, 누적 시장점유율은 각각 23.0%, 43.8%를 기록함
  - 2018년 상위 20개 보험회사 단독형 상품의 손해율은 0.03%에서 82.7%로 다양하게 분포됨

〈표 2〉 2018년 미국 사이버보험 단독형 상위 20개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보험회사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손해율 <sup>1)</sup>	누적 시장점유율
1	AXA 보험그룹	256	23.0	57.2	23.0
2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	232	20.9	36.1	43.8
3	Travelers 그룹	113	10.1	27.7	54.0
4	Beazley 보험회사	101	9.1	6.1	63.0
5	Zurich 보험그룹	43	3.9	18.2	66.9
6	BCS 보험그룹	40	3.5	13.5	70.5
7	Fairfax 금융그룹	38	3.4	23.4	73.9
8	Tokio Marine Holdings 보험그룹	35	3.1	38.2	77.0
9	Liberty Mutual Group	33	3.0	43.6	80.0
10	CNA 보험그룹	25	2.2	13.7	82.3
11	Aspen Insurance Holding Group	21	1.9	61.6	84.2
12	Axis Capital Group	20	1.8	1.6	85.9
13	Markel Corp Group	17	1.5	60.2	87.4
14	Intact Financial Group	13	1.2	53.2	88.6
15	Alleghany Group	11	1.0	12.1	89.6
16	Hiscox Insurance Group	11	1.0	26.8	90.6
17	WR Berkley Corp Group	10	0.9	20.4	91.5
18	Berkshire Hathaway Group	10	0.9	82.7	92.4
19	Allianz Insurance Group	10	0.9	0.03	93.2
20	Rli Insurance Group	9	0.8	4.9	94.0

주: 1) 손해 관련 사업비를 포함함  
 자료: NAIC(2019. 9), Report on the Cybersecurity Insurance and Identity Theft Coverage Supplement

■ 2018년 사이버보험의 특약형 상품을 판매한 미국 보험회사는 491개 보험회사로, 이는 2017년 대비 29개 보험회사가 늘어났으며,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9억 15백만 달러를 기록함

- 상위 10개 보험회사가 원수보험료의 71.8%를 차지하였고, 상위 20개 보험회사가 원수보험료의 82.8%를 차지함(〈표 3〉 참고)
  - Chubb Ltd 그룹의 시장점유율은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18년 상위 20개 보험회사 특약형 상품의 손해율은 0%부터 68.9%로 분포됨
  - Berkshire Hathaway Group이 단독형과 특약형에서 모두 가장 큰 손해율을 보임

〈표 3〉 2018년 미국 사이버보험 특약형 상위 20개사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보험회사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손해율 <sup>1)</sup>	누적 시장점유율
1	Chubb Ltd 그룹	321	35.7	28.6	35.7
2	CNA 보험그룹	58	6.5	32.5	42.2
3	Axis Capital Group	56	6.3	9.1	48.5
4	Hartford 화재 및 자동차 그룹	40	4.4	6.4	52.9
5	Sompo 그룹	34	3.8	56.7	56.7
6	Travelers 그룹	33	3.7	4.5	60.4
7	Liberty Mutual Group	33	3.7	34.1	64.1
8	BCS 보험그룹	30	3.3	6.3	67.4
9	Argo 그룹 US Inc 그룹	21	2.3	27.4	69.7
10	Berkshire Hathaway Group	19	2.1	68.9	71.8
11	Cincinnati 금융 그룹	17	1.9	7.0	73.6
12	Axis Capital Group	13	1.4	9.1	75.1
13	Farmers 보험그룹	13	1.4	3.6	76.5
14	Beazley 보험회사	10	1.1	24.4	77.6
15	Tokio Marine Holdings 보험그룹	10	1.1	3.4	78.7
16	WR Berkley Corp Group	9	1.0	0.3	79.7
17	Federated Mutual Group	9	1.0	2.5	80.7
18	Nationwide Corp Group	7	0.8	15.1	81.5
19	Markel Corp Group	6	0.7	0.0	82.2
20	MMIC Group	6	0.6	14.6	82.8

주: 1) 손해 관련 사업비를 포함함

자료: NAIC(2019. 9), "Report on the Cybersecurity Insurance and Identity Theft Coverage Supplement"

## 2. 일본 지진보험

■ 일본은 향후 30년 이내에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18년 지진보험 가구 가입률이 1967년 시행 이후 최고치에 도달함<sup>3)</sup>

○ 일본지진위원회에 의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진도 6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을 82%로 예측함

○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빌딩이 많은 동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진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3) 日本地震調査委員会(2019. 6), "全国地震動予測地図"

○ 또한, 지진보험료가 2021년부터 지역에 따라 최대 14.6% 인상될 예정이어서 지진보험 가입률은 2020년에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 일본 지진보험은 지진·분화·해일에 의한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으로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6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지진보험은 1964년 규모 7.6의 니가타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됨

■ 주요 특징은 법률에서 보호하는 가계성 물건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손해보험회사가 화재보험상품에 지진담보특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음<sup>4)</sup>

○ 지진보험은 거주용 건물과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진 분화 또는 쓰나미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화재 손괴, 매몰 유실에 의한 손해를 보상함

○ 보험가입금액은 화재보험 가입금액의 30~50%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지만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각각 5천만 엔, 1천만 엔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음

○ 지진보험리스크는 재보험제도에 의해 2019년 4월 기준으로 보험회사(1%)·재보험회사(19%), 정부(80%)가 상호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sup>5)</sup>

■ 일본 지진보험의 가입률은 1991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32.2% 수준임

○ 지진보험 가입률은 니가타 지진 발생 직후인 1967년에 20.0%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1년 7.1%까지 하락하고, 다시 한신고베 대지진 발생 직후 1995년 11.6%,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2012년 27.0%로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일본 지진보험 가입률은 대지진 발생 직후 급증하지만 급증 이후 하락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제도 시행 후 54년이 경과하였으나 가입률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진보험 가입률은 도쿄, 후쿠오카, 오오사카, 교토 등 지진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단, 가입자가 지진담보특약 선택을 거부할 수 있음

5) 단, 업계의 1회 총지급금이 11.7조 엔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약 94%를 부담함

〈표 4〉 일본의 지진보험 지역별 가구 가입률 추이

(단위: %)

구분	1967	1991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홋카이도	-	4.2	10.7	15.8	18.0	19.7	22.8	25.2
후쿠시마	-	5.0	7.2	10.2	12.1	14.6	28.0	31.0
도쿄	-	16.7	20.7	24.9	27.9	30.5	36.1	37.2
시즈오카	-	13.2	16.8	19.5	24.8	24.8	29.7	31.7
교토	-	2.5	7.4	11.1	14.9	21.3	28.2	32.0
오오사카	-	5.1	12.1	15.8	20.7	25.3	30.7	33.8
히로시마	-	3.4	9.0	15.5	21.7	24.9	28.7	31.2
후쿠오카	-	2.5	8.0	15.0	20.5	27.3	32.8	36.5
전국 평균	20.0	7.1	11.6	16.0	20.1	23.7	29.5	32.2

자료: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 地震保険統計(2019. 12. 28)

### 3. 일본 소액단기보험

■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2019. 12)<sup>6)</sup>에 의하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2019년 9월 말 기준 보유계약과 수입보험료는 각각 총 845만 건, 513억 엔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

○ 취급 종목별 보유계약 건수 비중은 가계성 재산보험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비중은 가계성 재산보험이 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명·의료보험 13%, 펫보험 13%로 나타남

〈표 5〉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 현황과 주요 영업실적(2019년도 상반기)

사업 종류	사업자 수 (개)	보유계약		수입보험료	
		건수(만 건)	구성비(%)	금액(억 엔)	구성비(%)
가계재산보험	49	717	85	346	67
생명·의료 보험	29	42	5	65	13
펫(애완동물)	8	45	5	66	13
비용·기타	16	39	5	35	7
전체	102	845	100	513	100

자료: 日本少額短期保険協會(2019. 12), “2019年度 少額短期保険業界の中間決算概況について”

6) 日本少額短期保険協會(2019. 12), “2019年度 少額短期保険業界の中間決算概況について”

- 금융청에 등록된 소액단기보험 사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102개사이며, 기존의 공제사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법인대리점(GA), IT회사, 종합상사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음
  - 소액단기보험사업자의 대부분이 기존의 무인가 공제사업자에서 전환되었지만 동경해상, 라쿠텐생명 등의 보험회사가 생·손보 겸업을 위해 자회사 방식으로 소액단기보험 사업자를 설립하기도 함
  - 취급하는 보험종목별로 사업자를 구분하면 가계성 재산보험 사업자 49개, 생명보험·의료보험 사업자 29개, 펫보험 사업자 8개 등임
  
- 일본 소액단기보험사업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소액·단기계약의 보험 인수만을 하는 보험 사업으로 2006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영업하던 이른바 ‘무인가공제’의 불안 전 판매 및 비정상적 경영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배경에서 실시됨
  -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 사업자는 사업범위가 보험업법상 제한된 보험사업자로 지위를 갖게 되고 금융청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업을 규제 및 감독할 수 있게 됨
  
- 소액단기보험업은 자본금 1천만 엔 이하, 연간 수입보험료 50억 엔 이하, 등록, 보험상품 종류 및 가입금액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일본 소액단기보험 사업자는 일반 보험회사가 할 수 없는 생명·손해보험업 겸업을 할 수 있고, 자본금이 1천만 엔 이하로 일반 보험회사보다 적으며, 금융당국의 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소액단기보험은 보험기간 1~2년의 단기성보험이나 보험가입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가 50억 엔을 초과할 경우 소액단기보험 사업자로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표 6〉 일본 소액단기보험 특징 비교

구분	소액단기보험사업자	보험회사
인가 여부	등록제(보험업법 제272조)	인가제(보험업법 제3조)
보험상품 제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있음	특별히 없음
사업 제한	수입보험료 50억 엔 이하	특별히 없음
계약자 보호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대상 외	보험계약자보호기구 대상
자본금	1천만 엔 이하	10억 엔 이상
감독규정	소액단기보험사업자 감독규정	보험회사 감독규정
겸업 여부	생·손보 겸영 가능	생·손보 겸영 불가

자료: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資料를 기초로 작성함

- 소액단기보험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사망보험 300만 엔, 의료보험 80만 엔, 질병보험 300만 엔, 손해보험 1,000만 엔 이하로 가입금액이 제한됨

〈표 7〉 일본 소액단기보험 보험상품 가입금액 한도

보험 종목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	300만 엔 이하
의료보험	80만 엔 이하
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는 중증장해보험	300만 엔 이하
상해 등을 원인으로 하는 중증장해보험	600만 엔 이하
상해사망보험	300만 엔 이하
손해보험	1,000만 엔 이하
저발생률 보험	1,000만 엔 이하

자료: 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

## 4. 대만 외화보험

- 2019년부터 대만 보험회사의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됨<sup>7)</sup>

○ 외화보험 신계약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80.4%, 22.2%를 기록했으나 2019년 1~9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0%로 하락함

- 2017~2018년 외화보험 신계약보험료가 5,056억 대만 달러에서 6,179억 대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전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1%에서 44.8%로 상승함

7) FSC(2019. 11), “壽險業108年截至9月底外幣保險商品銷售情形”

- 2019년 1~9월 외화보험 신계약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3,969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전년 같은 기간의 외화보험 신계약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미국 달러 강세 때문임<sup>8)</sup>
- 현재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화보험은 주로 미국 달러 보험, 호주 달러 보험 및 중국 위안 보험이 있으며, 2018년 기준 미국 달러 보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위안 보험, 호주 달러 보험 순임

■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화보험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형 및 전통형 상품으로 구분되며,<sup>9)</sup> 투자형 및 전통형 외화보험은 각각 2005년과 2008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함<sup>10)</sup>

- 외화보험 판매자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와 중앙은행(CBRC)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현재 주요 판매자는 BNP Paribas Cardif Life, Nan Shan Life, Cathy Life 및 Shin Kong Life가 있음<sup>11)</sup>
- 대만의 장기간 저금리 기조 지속, 대만 달러의 약세 및 외화보험에 대한 수요 존재는 외화보험이 대만에서 출시된 주된 원인임
  - 외화보험 판매가 허용될 때까지 일부 보험소비자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대만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외국보험회사의 외화보험을 가입한 현상이 존재함<sup>12)</sup>

〈표 8〉 대만 외화보험 신계약보험료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9월	
전체 외화보험 (억 대만 달러)	투자형	보험료	1,557	2,398	1,288
		증가율	198.8	54.0	-36.0
	전통형	보험료	3,500	3,780	2,681
		증가율	53.4	8.0	-5.0
	합계	보험료	5,056	6,179	3,969
		증가율	80.4	22.2	-18.0

8) 自由時報(2019. 8), “外幣保單退燒上半年衰退兩成保險局說明原因是這三項”

9) 투자형 상품은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투자연계형보험 및 변액연금을 포함하며, 전통형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의미함

10) 現代保險(2012), “外幣保單美不勝收”

11) FSC(2019. 11), “壽險業108年截至9月底外幣保險商品銷售情形”

12) 自由財經(2007. 4), “外幣人身保單開放保險業承做”

〈표 8〉 계속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9월	
미국 달러 보험 (억 미국 달러)	투자형	보험료	40	55	28
		증가율	235.6	39.4	-41.0
	전통형	보험료	106	117	81
		증가율	66.3	9.7	-11.0
	합계	보험료	146	172	109
		증가율	92.5	17.8	-21.0
호주 달러 보험 (억 호주 달러)	투자형	보험료	10	6	4
		증가율	106.0	-39.8	-28.0
	전통형	보험료	14	8	7
		증가율	76.5	-42.7	24.0
	합계	보험료	25	14	11
		증가율	87.8	-41.5	0.1
중국 위안 보험 (억 중국 위안)	투자형	보험료	13	99	46
		증가율	182.2	678.7	-47.0
	전통형	보험료	2	4	3
		증가율	-51.5	143.8	-1.0
	합계	보험료	14	103	49
		증가율	83.3	618.9	-46.0

자료: FSC 보도자료, “壽險業外幣保險商品銷售情形”

■ 외화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 채널이며, 주요 가입자는 40~60세 소비자임<sup>13)</sup>

-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60세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안정적인 소득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임
- 2018년 기준 가입자 연령층별 외화보험의 가입상황을 보면, 40~60세 가입자는 투자형 외화보험을 선호하며, 40세 이하 및 60세 이상 가입자는 각각 장기납 및 일시납 외화보험을 선호함

■ 다만 FSC는 보험회사 외화보험의 합리적 경영관리를 위해 일련의 후속조치를 발표함

- 2013년 12월 전통형 외화보험 판매자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의 전통형 외화보험 경영에 필요한 자격 및 주의 사항」을 발표해 보험회사의 자격, 외화보험의 유형 및 개발, 모집인

13) 今日新聞(2019. 3), “外幣保單熱賣大數據揭露世代差異年輕小資愛投保這種”

에 대한 관리, 위험관리와 같은 내용을 명시함

- 투자형 외화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형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감독규정의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킴

○ 2007년 8월부터 외화보험 상품관리를 위해 대만 보험계리학회가 외화보험 설계에 필요한 계리기준을 제시함

- 현재까지 외화보험 관련 계리기준은 외화 무배당 생명보험, 외화 유배당 생명보험, 외화 금리변동형 생명보험, 외화 유니버설 생명보험, 외화 금리변동형 연금보험 및 외화 건강보험 계리기준이 있음

○ 2019년 12월 외화보험 판매에 따른 해외투자 수요 증대를 감안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상한을 62.25%로 상향조정했으며, 다만 해외투자로 인한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외환변동성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함

- 또한 전통형 외화보험의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해외투자자산의 35%를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에서 제외시킴

■ 또한 FSC는 외화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외화보험 관련 자율규정 제정, 모집자격시험 도입, 주의사항 게시와 같은 조치를 추가로 마련함

○ 2012년 8월 대만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전통형 외화보험 경영 자율규정」을 제정해 보험회사가 외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합도 평가, 위험고지서, 3일의 보험증권 열람 시간, 10일의 청약철회 기간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동 자율규정에 따라 외화보험 모집자격시험이 도입되었으며, 외화보험 모집인은 생명보험 모집자격시험과 외화보험 모집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함

○ 2013년부터 FSC는 홈페이지에서 외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외화보험 가입의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있음

■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민원은 대만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대만에서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대만 달러 보험에 비해 외화보험의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임

- 예를 들어 2019년 말까지 투자형 대만 달러 보험의 수익률은 2.25~2.6%를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형 외화보험의 수익률은 3.0~3.3%를 기록하고 있음<sup>14)</sup>

- 또한 대만 푸본생명보험회사의 관계자는 대만 감독당국의 외화보험 관련 감독규정, 자율 규정 및 모집자격시험 등과 같은 조치가 외화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잘 보호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만 국민이 은행 외화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외화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함<sup>15)</sup>

## 5. 대만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험

- 최근 대만 보험회사의 IOT 기반 보험 판매는 감독당국의 정책지원으로 활발해지고 있음
  - 현재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IOT 기반 보험은 주로 건강증진형 보험 및 운전습관연계(UBI) 자동차보험이 있음
  - 건강증진형 보험은 계약자가 약정 목표 달성 시 혜택을 제공해 건강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동습관에 따른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가액 증액을 제공하는 상품,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가액 증액을 제공하는 상품 및 기타 비(非)현금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있음
  - UBI 자동차보험은 운전습관을 측정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며, 운전습관 측정에 필요한 차량자가진단장치(OBD)를 사용하는 상품과 사용하지 않는 상품으로 구분됨
- 대만 감독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
  - 2015년 8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생명보험 심사 주의사항」을 수정해 보험회사의 실물지급형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함<sup>16)</sup>
    - 실물지급형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건강증진형 보험은 실물지급형 보험의 일종으로 계약자의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품임<sup>17)</sup>
  - 2016년 9월 FSC는 「인슈어테크 발전 계획」을 발표해 건강증진형 보험, UBI 자동차보험

14) 鉅亨網(2019. 10), “儲蓄險明年將掀搶買潮投保前先搞懂七大重點”

15) 대만 푸본생명보험회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임

16) FSC(2015. 7), “金管會將開放人身保險業辦理實物給付型保險業務及開放投資型保單連結國際債券(含寶島債)”

17) 물품이나 서비스는 헬스관리, 의료, 간호, 장기요양, 노년요양 및 장례와 같은 서비스를 포함함

을 포함한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함<sup>18)</sup>

○ 2017년 1월 FSC는 2개 건강증진형 보험을 승인하는 동시에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sup>19)</sup>

- 2019년 12월까지 FSC는 14개 생명보험회사의 28개 건강증진형 보험을 승인함<sup>20)</sup>

○ 2018년 7월 FSC는 건강증진형 고령자 전용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수정함<sup>21)</sup>

- 수정된 관리방법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건강증진형 고령자 전용 보험의 판매량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함

■ 건강증진형 보험은 2017년 초부터 출시되고 나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건강증진형 보험의 신계약 건수, 초년도 보험료는 각각 2018년 1만 645건, 8,839만 대만 달러에서 2019년 6만 117건, 8억 1,646만 대만 달러로 급증함

〈표 9〉 대만 건강증진형 보험의 판매량 변화 추이

(단위: 건, 만 대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운동습관에 따라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가액 증액을 제공하는 상품	신계약 건수	2,237	29,172	26,935
	초년도 보험료	4,944	65,554	60,610
	회사 수/상품 수	5/5	6/16	1/11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가액 증액을 제공하는 상품	신계약 건수	8,400	30,944	22,544
	초년도 보험료	3,864	16,090	12,226
	회사 수/상품 수	5/5	6/10	1/5
기타 비(非)현금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신계약 건수	8	1	-7
	초년도 보험료	31	2	-29
	회사 수/상품 수	2/2	2/2	0/0
합계	신계약 건수	10,645	60,117	49,472
	초년도 보험료	8,839	81,646	72,807
	회사 수/상품 수	12/12	14/28	2/16

자료: FSC(2020. 2), “壽險公司108年至第4季具外溢效果保險商品及實物給付保險商品之銷售情形”

18) FSC(2016. 9), “金管會提出「金融科技發展推動計畫」”

19) FSC(2017. 1), “金管會鼓勵保險業研發具外溢效果之健康管理保險商品”

20) FSC(2020. 2), “壽險公司108年至第4季具外溢效果保險商品及實物給付保險商品之銷售情形”

21) FSC(2018. 6), “金管會鼓勵保險業者銷售或設計開發高齡化保險商品”

- 현재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은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들은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걸음 수를 비롯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계약자가 약정 목표 달성 시 보험가입금 증액 또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표 10〉 대만 건강증진형 보험 비교

보험회사	보험유형	사용 장치	보험료 결정 시 참조 요인	제공 혜택
Cathy Life	중대질병보험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	걸음 수	보험가액 5~10% 상향 제공
Fubon Life	의료보험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	걸음 수	보험료 3~10% 할인
Taiwan Life	중대질병보험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	걸음 수	보험료 2~4%에 해당되는 환급금 지급
China Life	중대질병보험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	걸음 수	보험료 1~5% 할인
First Life	중대질병보험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	걸음 수	보험료 1~4% 할인
Shin Kong Life	중대질병보험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 앱	걸음 수, 심박 수, 수면 등	보험료 15~50% 할인

자료: 經濟日報(2019. 4), “外溢保單掀價格戰保費最高折扣50%”

#### ■ UBI 자동차보험도 감독당국의 정책 지원으로 출시가 가능해졌음

- 2015년 말 대만 보험사업발전센터(TII)는<sup>22)</sup> Fubon P&C, Cathy P&C, Tokio Marine Newa Insurance, Shin Kong P&C와 UBI 자동차보험 개발에 필요한 자동차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함께 구축함
- 2016년 2월 FSC는 Taian Insurance의 UBI 자동차보험을 최초로 승인했으며,<sup>23)</sup> 2019년 6월까지 총 8개 UBI 자동차보험이 FSC의 승인을 받음<sup>24)</sup>
- 2016년 6월 FSC는 보험회사들이 인슈어테크 기술을 활용한 신상품(UBI 자동차보험 포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sup>25)</sup>
- 다만 FSC는 2019년 6월에 보험회사의 과도한 가격경쟁 우려로 UBI 자동차보험의 판매

22) TII는 한국의 보험개발원 및 보험연구원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임

23) FSC, 保險商品審查(www.ib.gov.tw/ch/home.jsp?id=64&parentpath=0.8&mcustomize=onemessages\_list.jsp)

24) 工商時報(2019. 11), “車主重視個人隱私產險UBI車險承保不如預期”

25) 現代保險(2016. 7), “泰安產險：車聯網UBI車險app獲准為產險業首件金融科技”

- 를 일시 중지했으며, 2020년 1월에 UBI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함<sup>26)</sup>
- FSC는 대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UBI 자동차보험이 특약이 아닌 주계약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주행거리로 최초 가입 시의 보험료를 산출하고 운전습관으로 재가입 시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이 기존 보험료 결정 방식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명시함
- 또한 UBI 자동차보험을 이미 개발한 보험회사들이 상기 발전 방향을 반영해 보험료 결정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UBI 자동차보험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힘

■ UBI 자동차보험은 2016년 초부터 대만에서 출시됐지만 판매량이 높지 않음

- UBI 자동차보험은 2019년 1월 기준 계약 건수가 약 6,000건, 수입보험료가 1.25억 대만 달러에 불과함
  - UBI 자동차보험의 판매 부진은 비싼 차량자가진단장치(OBD) 설치비용,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한적인 할인을 등으로 소비자가 UBI 자동차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 2019년 6월 판매가 일시 중지될 때까지 대만에서 판매된 대표적인 UBI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음

〈표 11〉 대만 UBI 자동차보험 비교

보험회사	보험유형	사용 장치	보험료 결정 시 참조 요인	제공 혜택
Hotains P&C	자차손실보험	차량관리기록	주행거리, 브레이크 손상 정도	보험료 10~15%의 할인
Taian Insurance	임의자동차보험	OBD장치와 스마트폰 앱	주행거리, 운전행위, 사용 시간	보험료 5~25% 할인
Cathy P&C	자차손실보험	스마트폰 앱	주행거리, 사용시간	보험료 5~10% 할인
Fubon P&c	임의자동차보험	스마트폰 앱	주행거리	보험료 15% 할인

자료: 聯合晚報(2019. 2), “UBI車險看里程免涉隱私”

26) 現代保險雜誌(2020. 1), “UBI保單2.0! 產官檢討半年終於定案”

---

# [특집] 영국 보험산업 핵심 요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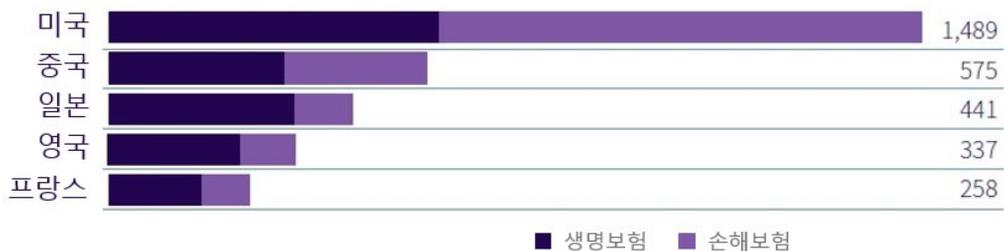
---

## 1. 총괄

- 영국 보험시장은 2018년도 총 수입보험료 기준 유럽 최대 시장이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시장임
  - 영국 보험시장의 투자 규모는 약 1.74조 파운드임
  - 2014년 기준 보험산업은 영국 정부에 약 120억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함
  - 영국 보험산업에 약 307,000명의 사람들이 재직 중임
    - 이 중 113,600명은 보험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재직 중이며, 193,400명은 중개업과 같은 보험 및 연금 보조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그림 1〉 2018년도 총 수입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자료: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 영국의 공인 생명보험회사는 332개이며, 공인 손해보험회사는 927개임
  - 생명보험회사들 중 149개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83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본사를 둬

---

1)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 손해보험회사들 중 255개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672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본사를 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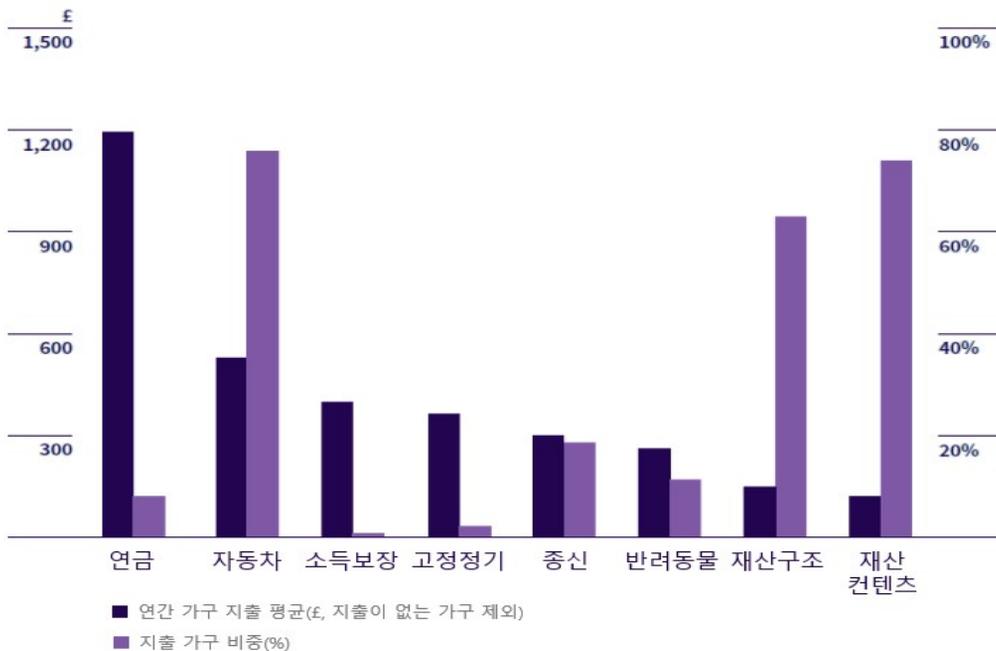
■ 2017~2018년 가구 및 상품유형별 지출에서 평균 지출 금액은 연금, 자동차보험, 소득보장 보험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 가구 중 보험 보유 비율은 자동차보험, 재산보험, 종신보험 순으로 높았음

○ 2018년 영국의 26.5백만 가구 중 보험 유형별 보유 현황은 컨텐츠보험<sup>2)</sup> 19.3백만 가구, 자동차보험 20.0백만 가구, 건물보험 16.5백만 가구, 담보보호보험 2.8백만 가구, 개인 의료보험 1.6백만 가구임

○ 보험상품 보유 현황은 종신보험 4.8백만 가구, 개인연금 2.3백만 가구, 정기보험 0.6백만 가구, 소득보장보험 0.2백만 가구임

〈그림 2〉 2017~2018년도 가구 및 상품유형별 지출

(단위: £, %)



자료: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2) 개인 소유물이 해당 개인의 집에 있는 동안 개인 소유물에 대한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정종합보험(Home Owner-Policy)과 유사함

## 2. 손해보험

### 가. 보험 유형별 통계 및 요약

#### 〈자동차보험〉

- 2018년 자동차보험의 언더라이팅 수익은 515백만 파운드이며, 2017년 258백만 파운드에 비해 크게 증가함
- 보험회사들은 하루 평균 29백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22백만 파운드는 개인보험, 7백만 파운드는 기업보험 관련 보험금 청구임
- 2019년 3분기까지 자동차 보험료의 평균은 468파운드로, 2017년 4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491파운드보다 하락함
- 2017/2018년도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98.4%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동일함

#### 〈재산보험〉

- 재산보험의 언더라이팅 손실은 316백만 파운드로, 2010년 이후 세번째로 손실을 나타냄
- 건물 및 재산 복합 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2019년 3분기 315파운드로 2018년 3분기 307파운드에 비하여 상승함
- 보험회사들은 하루 평균 17백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9백만 파운드는 가계보험, 8백만 파운드는 기업보험 관련 보험금 청구임
- 2017/2018년도 재산보험금 청구의 82.8%가 지급되었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여행보험〉

- 2018년 보험회사들은 498,000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399백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209백만 파운드는 응급 의료비, 145백만 파운드는 예약 취소 관련 보험금 청구임
- 2017/2018년도 여행보험금 청구의 87.6%가 지급되었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의료보험〉

- 2018년 ABI 회원사들의 의료보험 총 수입보험료는 47억 파운드를 초과하였으며, 보험회사들은 개인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하루 평균 7백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함

〈책임보험〉

- 2018년 책임보험 시장의 언더라이팅 수익은 422백만 파운드로, 2017년 57백만 파운드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보험회사들은 하루 평균 5.9백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함

〈반려동물보험〉

- 펫보험 계약은 3.6백만 건이며, 가입대상의 약 95%가 개와 고양이임
-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들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 하루 평균 2백만 파운드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함
-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금 청구 금액 평균은 약 793파운드임

〈무역신용보험〉

- 2018년 무역신용보험 계약은 13,727건이며, 보험회사는 하루 평균 689,000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함

〈그림 3〉 2018년도 보험 청구 유형별 국내 재산보험 청구 현황

(단위: %)



자료: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 나. 보험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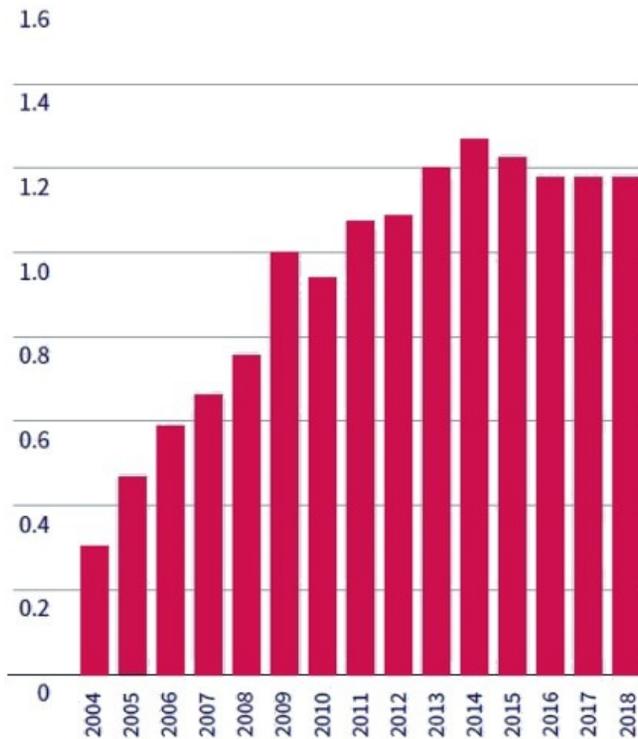
■ 2018년 손해보험의 보험금 사기 미수 사례는 98,000건 이상으로, 2017년에 비하여 6% 감소하였으며, 발각된 사기 금액 규모는 11.8억 파운드임

○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보험 유형은 자동차보험으로 2018년 54,000천 건 이상이며, 사기 금액 규모는 628백만 파운드임

○ 책임보험 사기는 19,000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사기 금액 규모는 416백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음

〈그림 4〉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규모

(단위: 십억 파운드)



자료: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 3. 생명보험 및 장기저축보험

#### 가. 보험 유형별 통계 및 요약

##### 〈연금〉

- 2018년 연금 계약은 25.1백만 건으로, 개인연금 보험의 54%가 직장연금임
  - 2018년 신계약 연금 계약 판매 건수는 4.7백만 건 이상임
  - 직장연금 가입률은 76%로, 2017년 73%에 비하여 소폭 상승함
  - 2018년 7월 말까지 연금자동등록<sup>3)</sup> 대상 직원 수는 21.7백만 명이었으며, 이 중 10.1백만 명이 자동 등록됨

##### 〈퇴직연금〉

-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퇴직연금 지급금 및 현금 인출 등으로 약 68억 파운드가 인출됨

##### 〈소득공제〉

- 2018년 94.6억 파운드가 소득공제 상품에 투자되었으며, 111,600건의 신계약이 체결되어 평균 약 84,800파운드가 투자됨
  - 이는 2017년 102,200건, 92.2억 파운드에 비하여 증가한 수치임

##### 〈연금보험〉

- 2018년 연금보험 보유계약은 6.6백만 건으로, 2018년 보험료는 149억 파운드임
  - 2018년 연금보험 신계약은 약 70,000건으로 2017년 69,000건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연금 신계약 판매액 규모는 44억 파운드로 전년과 동일함
  - 연금보험 가입 시 기존 연금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는 비율이 49%임

3)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직장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한 곳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임

### 〈투자 및 저축〉

- 2018년 투자 및 저축 상품의 보유계약 수는 5.8백만 건이며, 신계약 건수는 77,000건임
- 보험회사들은 하루 평균 40백만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 〈장기보장〉

- 2018년 장기보장 상품의 보유계약 건수는 24,000건임

### 〈ISA〉

- 2018년 ISA의 신계약 건수는 200,000건임

### 〈보장성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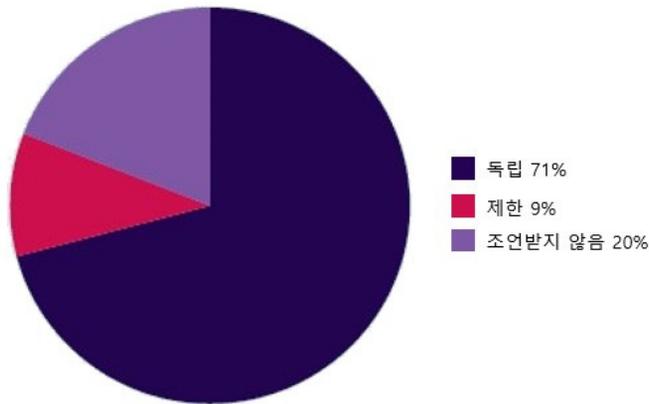
- 보장성 보험 상품은 정기보험, 종신보험, 생활보험, 소득 보장, 중대질병 및 단체생명보험이며, 중대 질병 및 사고 또는 사망 시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함
  - 정기보험, 종신보험, 소득 보상보험, 중대질병 보험(CI) 보유계약은 23.7백만 건이고 단체생명보험 보유계약은 442,000건임
  - 단체생명보험, 단체 소득보상보험, 단체 중대질병보험 등에 가입된 보험계약자는 11.6백만 명이며, 그 중 8.6백만 명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2018년 보장성 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약 2.5백만 건임
  - 보장성 보험금 청구의 98%가 지급되었으며, 이 중 생명보험은 97%, 중대질병보험은 92%가 지급됨
  - 보험회사들은 189,000명에게 53억 파운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하루 평균 14.5백만 파운드 규모임

## 나. 보험상품 구입 방법

- 보험상품 구입 시 일부 가계성 보험상품은 장기보험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직접 구매의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저축 및 투자 상품은 조언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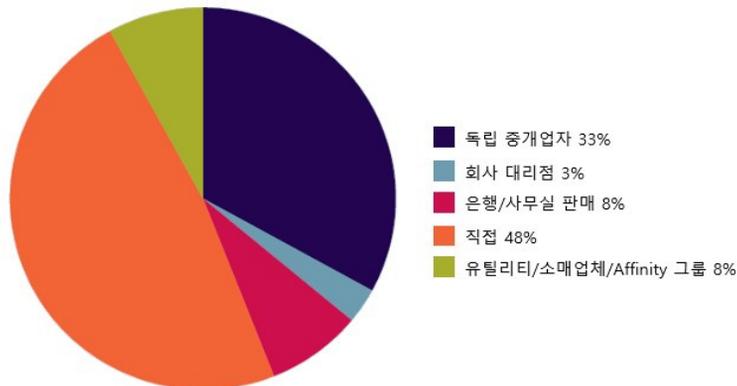
- 개인 자동차보험의 과반수(61%) 및 개인 재산보험의 약3분의 1(30%)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며, 이는 가격 비교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포함한 수치임
- 연금 및 보장성 보험 또는 기타 장기보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80%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였음
  - 연금 상품은 71%, 보장보험 상품은 67%가 개별적으로 조언을 받음

〈그림 5〉 조언채널별 장기보험 상품 분포 (단위: %)



자료: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그림 6〉 손해보험 중 개인보험 구입 채널 분포 (단위: %)



자료: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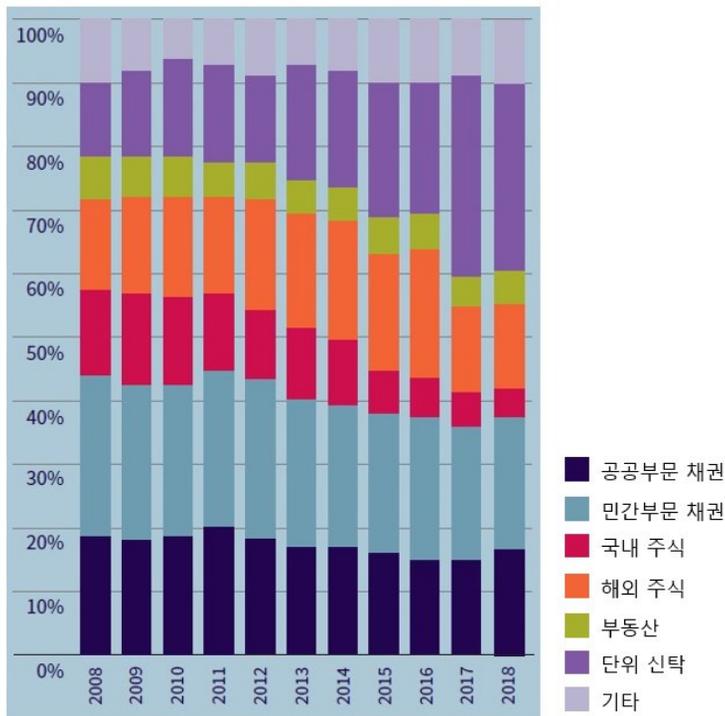
### 다. 중요 투자자 역할

■ 2018년 말 ABI 회원 보험회사들의 투자 자산 규모는 1.74조 파운드로, 그 중 1.60조 파운드를 생명보험회사가 차지함

- 자산 유형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은 2009년 전체의 15%에서 현재 4%로 감소하였음
- 해외 주식도 최근 10년간 3% 감소하며 하락세를 나타냄
- 단위 신탁<sup>4)</sup>은 최근 10년간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8년 규모는 5,020억 파운드임

〈그림 7〉 자산 유형별 투자 현황

(단위: %)



자료: ABI(2019. 12), "UK Insurance&Long-Term Savings Key Facts"

4) 계약형·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와 유사함(전용식·조영현(2016. 2),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을 참조 바람)

---

# [특집] 해외 판매채널: 영국편

---

## 1. 영업 중인 채널 현황 및 분류

### <생명보험>

-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생명보험 판매채널을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 無자문(Non-Advised)으로 구분함
  - 제한적 자문에는 독립중개사(New WoM Premiums), 다중 전속설계사(New Multi Tied Premiums), 단일 전속설계사(New Single Tied Premiums)가 포함됨
  - 無자문에는 소개 및 제3 중개사(New Introduced/Third-Party Distributor), 순수 직접 판매(New Pure Direct Premiums)가 포함됨
  - 전속채널과 비전속채널로도 구분이 가능하며, 1) 전속채널에는 단일 전속설계사, 직접 판매 등이 포함되고 비전속채널에는 독립자문, 독립중개사가 포함됨
  - 전속채널과 비전속채널의 중간 형태로 다중 전속설계사가 존재함

### <손해보험>

- ABI는 손해보험 판매채널을 독립 중개사(Independent Intermediaries), 회사대리점(Company Agents),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Banks/Building Societies), 직접 판매(Direct), 유틸리티/소매업자/유관단체(Utilities/Retailers/Affinity Groups), 기타(Others)로 구분함
  - 독립중개사에는 National Brokers, Chain Brokers and Telebrokers, 기타(Other Intermediaries and Brokers)가 포함됨
  - 회사대리점에는 회사 직원(Company Staff), 기타 회사 대리점(Other Company Agents)이 포함됨

---

1) 류성경(2014. 5. 3), 『영국 보험 영업인력의 모집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 2. 채널의 정의

### 〈생명보험〉

#### ■ 생명보험 채널의 분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모든 유형의 소매투자 상품(All types of retail investment products), 모든 상품공급업자(All firms across the market)의 상품을 대상으로 편향되거나 한정되지 않은 자문을 수행하는 자 또는 회사, 즉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를 의미하며 FCA의 엄격한 규제를 받음
-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 특정 상품(군) 또는 특정 상품제공업자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또는 회사로서 ‘독립적인(Independent)’이라는 표현 사용이 금지되며 독립중개사, 전속설계사, 그리고 다중전속설계사가 여기에 속함
  - 독립중개사는 전체 시장 상품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전속설계사는 하나의 보험회사 혹은 하나의 보험회사 상품만을 취급하는 판매조직에 전속되어 판매(전속채널: 금융사 직속)하는 반면, 다중 전속설계사는 양극화폐지(Depolarization, 2005)<sup>2)</sup>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채널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함
- 無자문(Non-Advised):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 중개 활동이 없이 메일, 인터넷,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의미하며 보험비교 사이트가 포함됨

### 〈손해보험〉

#### ■ 손해보험 채널의 분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독립 중개사(Independent Intermediaries): 전속된 회사 없이 독립적으로 모든 보험 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업자를 뜻함
- 회사대리점(Company Agents): 회사의 전속된 지점으로 특정 회사의 상품을 취급함
-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Banks/Building Societies): 은행 지점 또는 은행, 주택금융조합

2) 1988년 상품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양극화 규정’을 시행하여 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독립판매(IFA)와 1사 전속 판매(Tied-agent)만을 인정하다가, 2005년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채널이 패키지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됨

과 같은 보험회사 외의 금융기관과 제휴한 보험 대리점 또는 은행 직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의미함

- 직접 판매(Direct): 중개인이 없이 보험회사와 고객 사이에 직접 계약하는 형태임
- 유틸리티/소매업자/유관단체(Utilities/Retailers/Affinity Groups): 유틸리티 산업,<sup>3)</sup> 마트와 같은 소매업자, 유관단체(예: 자동차 딜러, 스포츠 조직)에서의 가입 채널을 의미함

### 3. 최근 주요 채널의 변화 양상

〈독립투자자문업체 IFA〉

■ 생명보험 판매채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IFA이며, IFA는 독립 금융자문 중개업자로서 보험분야에 제한하지 않고 금융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포괄적인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를 뜻함

- IFA는 고객의 재무 상황, 즉 재무 상태나 리스크, 그리고 위험에 대한 성향을 반영하여 고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의 Financial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sup>4)</sup>
- IFA에는 개인 또는 법인 형태의 조직이 존재하며, 생명보험, 연금보험, 계약형/회사형 투자신탁 등의 금융상품을 주로 취급함
  - 상품별로 보면 보험상품 취급 비중이 비교적 높지만, 보험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신탁 등 금융업 전체를 포괄함
-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광범위하게 IFA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개인 재무 전반에 걸친 설계를 요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부합하여 발전함<sup>5)</sup>

■ 2000년대 중반부터 보험독립법인대리점(GA) 판매 비중이 보험회사 전속판매 채널을 앞서기 시작함

3)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산업을 의미함

4) 류성경(2014. 5. 3), 『영국 보험 영업인력의 모집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5) 류성경(2014. 5. 3), 『영국 보험 영업인력의 모집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 금융겸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영국은 GA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IFA가 보험상품 판매의 80% 이상 비중을 차지함
- 1990년도 이전에는 영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업직원이 보험상품의 주요 판매 채널이었으나 양극화 규정의 등장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IFA가 주요 채널로 떠오름
- IFA 성장은 곧 비전속채널의 성장으로 직결되었음
  - 영국에는 16,000개 이상의 중개채널 관련 회사가 존재하며, 이들은 57,000명에 육박하는 중개채널 종사자들과 71,000명 이상의 Support Staff들을 고용하고 있음
- IFA 비중의 성장에 따라 보험사들이 IFA의 요구에 따른 전용 상품도 개발하고 있음

〈표 1〉 2019 영국 상위 11개 IFA

영국 상위 IFA	2019년 등급
Alexander House Financial Services Ltd.	5
Almary Green	5
Anstee&Co.	5
Ashlea Financial Planning Limited	5
Ctitchleys	5
Equilibrium Asset Management	5
Paradigm Norton	5
Partridge Muir&Warren	5
Russell Ulvatt	5
Serenity Financial	5
Chetwood Wealth Management	3

자료: AdvisoryHQ, "11 Best Financial Advisers in the UK | 2019 Ranking<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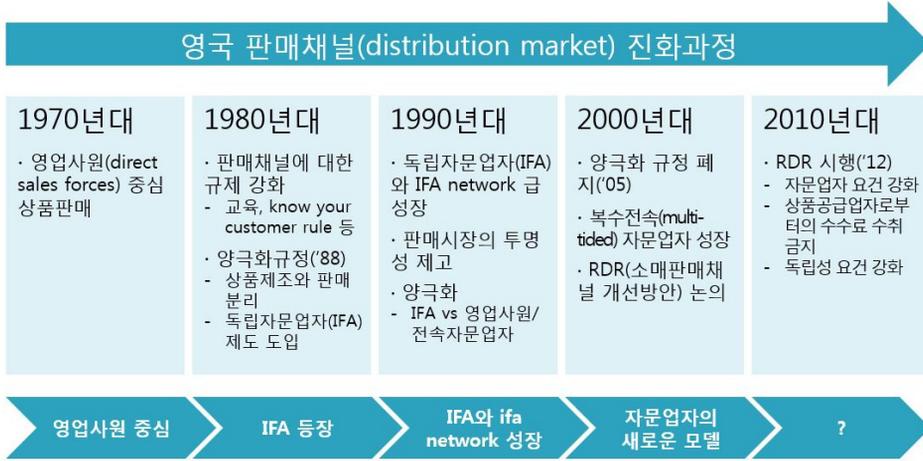
### 〈다자간(독립)대리점(Multi-tied Agents)〉

- 양극화 규정 폐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채널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재무적 조언 및 금융상품을 제공함<sup>7)</sup>
  - 전속대리점(Single-tied Agents)이 오직 한 회사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 선택이 다양하나, 한정된 범위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므로 IFA에 비하여 상품 선택이 제한적임

6) <https://www.advisoryhq.com/articles/top-independent-financial-advisers-uk-best-wealth-managers-and-ifas/>

7) 류성경(2014. 5. 3), 『영국 보험 영업인력의 모집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그림 1〉 영국 판매채널 발전과정



자료: 금융투자협회(2017), E&Y 자료를 재작성함

## 4. 판매채널 현황

### 〈생명보험 채널별 수입보험료 현황〉

■ 영국생명보험 채널별 시장점유율은 독립자문업자인 IFA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직접 판매 및 단일 전속설계사의 비율이 높음

○ 2019년 3분기 기준 독립자문(Independent Advice) IFA의 비중은 69.1%로 신탁형 연금(Trust-based Pensions) 및 단기 연금보험(Pension Annuities)을 제외하면 모든 상품에서 최대 비율을 보유함

- 정기보험 기준 IFA의 비율은 75%이며, 단기보험 기준 IFA의 비율은 68%임<sup>8)</sup>
- IFA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59%, 2004년 67.6%로 꾸준히 상승하였음

○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으로서 독립중개사(New WoM Premiums), 다중 전속설계사(New Multi Tied Premiums), 단일 전속설계사(New Single Tied Premiums)는 각각 5.1%, 1.5%, 9.1%를 차지함

- 정기보험 기준 비율은 1%, 1%, 14%로 단일전속설계사의 비율이 높으며, 단일보험

8) ABI, 2019 Q3 new business overview tables

기준 비율은 6%, 2%, 8%로 정기보험에 비해 독립중개사의 비율이 높음<sup>9)</sup>

- 無자문(Non-Advised)의 경우 소개 및 제3 중개사(New Introduced/Third-Party Distributor)가 2.8%, 직접 판매(New Pure Direct Premiums)가 12.3% 비율을 차지함
  - 직접 판매의 경우 2000년 21.5%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하였음
- 직접 채널과 전속 채널의 경우 최근 다자간 채널의 등장으로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음
- 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시장에서 IFA는 여전히 중요 채널임

〈표 2〉 영국 2019년 3분기 생명보험 채널별 신계약 수입보험료 및 비중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독립자문	제한적 자문			無자문	
		독립중개사	다중 전속 설계사	단일 전속 설계사	소개 및 제3중개사	직접 판매
투자 및 저축성 (Investment & Savings)	1,946	208	43	315	5	190
	71.9	7.7	1.6	11.6	0.2	7.0
개인가입형연금 (Individual Pensions)	2,776	133	35	263	18	154
	82.2	3.9	1.0	7.8	0.5	4.6
직장가입형 연금 (Work-based Pensions)	2,698	4	5	409	16	400
	76.4	0.1	0.1	11.6	0.4	11.3
신탁형 (Trust-based Pensions)	70	-	-	94	9	124
	23.5	0.0	0.0	31.6	3.2	41.7
역외영업 (Offshore Business)	621	274	0.05	2	-	2
	69.1	30.5	0.0	0.3	0.0	0.2
정기-개인 보장 (Individual Protection)	109	9	178	22	19	19
	56.1	4.6	9.1	11.1	9.6	9.6
정기-그룹 보장 (Group Protection)	82	-	-	0.3	-	5
	93.9	0.0	0.0	0.3	0.0	5.8
단기-연금보험 (Pension Annuities)	344	11	0.01	3	272	541
	29.4	0.9	0.0	0.3	23.2	46.2
단기-소득 감소 (Income Drawdown)	1,477	107	124	228	75	370
	62.0	4.5	5.2	9.6	3.1	15.6
총계	10,123	746	224	1,335	414	1,805
	69.1	5.1	1.5	9.1	2.8	12.3

주: 1) 정기+단기 신계약 수입보험료 총합

2) 개인보장, 그룹보장의 경우 정기보험 단일, 연금보험 및 수입 축소의 경우 단기보험 단일 자료임

자료: ABI, 2019 Q3 new business overview tables 자료를 재구성함

9) ABI, 2019 Q3 new business overview tables

〈손해보험 채널별 수입보험료 현황〉

- 영국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부문별 채널 시장점유율은 독립 중개사(Independent Intermediaries)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특히 해양·항공·운송 분야(MAT, Marine, Aviation and Transport)의 경우 대부분이 독립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짐
  - 개인보험(Personal Lines)의 경우 독립중개사(33%)보다 직접 판매(48%)가 더 많았으며, 기업보험(Commercial Lines)의 경우 독립중개사가 79%로 약 4/5를 차지함
  - 그에 반해 회사대리점(Company Agents) 또는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Banks/Building Societies), 유틸리티 등(Utilities/Retailers/Affinity Groups)의 비중은 미약하였음

〈표 3〉 영국 2018년 손해보험 채널별 수입보험료 및 비중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독립 중개사	회사 대리점	은행 및 주택금융 조합	직접 판매	유틸리티/소매업자/유관단체	기타	총계
개인라인	8,006	728	1,941	11,646	1,941	0	24,262
	0.33	0.03	0.08	0.48	0.08	0	1
상업라인	10,825	1,096	0	1,370	411	137	13,703
	0.79	0.08	0	0.1	0.03	0.01	1
해양·항공 및 운송	771	0	0	0	0	0	771
	1	0	0	0	0	0	1
총계	19,755	1,549	1,937	13,170	2,324	0	38,736
	0.51	0.04	0.05	0.34	0.06	0	1

주: 1) 독립 중개자(Independent Intermediaries): 국가 브로커(National Brokers), 체인 및 텔레 브로커(Chain Brokers and Telebrokers), 기타 독립 중개자(Other Intermediaries and Brokers)의 합계임. 2013년부터 신계약 자료 없음

2) 회사 대리점(Company Agents): 회사 직원(Company Staff), 기타 회사 대리점(Other Company Agents)을 포함함. 2013년부터 자료 없음

자료: ABI, "General insurance product distribution 2018" 자료를 재구성함

- 개인 상품별로는 자동차 보험 및 기타 상품에서 직접 판매가 두드러졌으며, 여행상품의 경우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의 판매가 많았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접 판매 61%, 독립중개사 32%로 직접 판매의 비중이 높았음
  - 재산보험의 경우 독립중개사 34%, 직접 판매 30%,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판매가 22%로 세 채널의 활용이 많았음
  - 여행보험의 경우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판매가 60%로 타 상품에 비해 비중이 높았음

〈표 4〉 영국 2018년 손해보험 채널별 상품별 수입보험료 및 비중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독립 중개사	회사 대리점	은행 및 주택금융 조합	직접 판매	유틸리티/ 소매업자/ 유관단체	기타	총계
자동차 (Motor)	4,053	127	380	7,726	380	0	12,665
	0.32	0.01	0.03	0.61	0.03	0	1
재산 (Property)	1,756	310	1,136	1,549	413	0	5,164
	0.34	0.06	0.22	0.30	0.08	0	1
여행 (Travel)	49	3	185	34	22	15	309
	0.16	0.01	0.60	0.11	0.07	0.05	1
기타 개인 라인 (Other Personal Lines)	2,205	184	245	2,450	1,041	0	6,124
	0.36	0.03	0.04	0.40	0.17	0	1

주: 1) 독립 중개자(Independent Intermediaries): 국가 브로커(National Brokers), 체인 및 텔레 브로커(Chain Brokers and Telebrokers), 기타 독립 중개자(Other Intermediaries and Brokers)의 합계임. 2013년부터 신계약 자료 없음  
2) 회사 대리점(Company Agents): 회사 직원(Company Staff), 기타 회사 대리점(Other Company Agents)을 포함함. 2013년부터 자료 없음

자료: ABI, "General insurance product distribution 2018" 자료를 재구성함

## 5. 채널별 관련 규정

〈금융감독 기관 설립 및 법률 제정〉<sup>10)</sup>

■ 1990년대 영국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종합금융기관의 발전 등 금융서비스업이 크게 변화하면서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이중구조, 업종별 감독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1997년부터 금융감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였음

○ 1998년에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신설하였고, 2000년 6월 모든 금융기관의 업무행위를 일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업종별 법체계를 통합한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을 제정하여, 2001년 12월부터 발효됨

10) 이기형·박정희(2007. 9), 『영국 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보험개발원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은 금융 업무를 기능별로 규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청(FSA)으로 일원화한 통합법으로 총 20개의 파트로 구성됨

- 보험회사 등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험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계약체결과 같은 금융영업활동(Financial Promotion)을 하는데 적용되는 규제는 'FSA 핸드북'의 업무행위규제기준(Business Standard)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규범(COB: Conduct of Business)<sup>11)</sup>과 보험영업규범(ICOB: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sup>12)</sup>으로 구분됨

#### 〈손해보험의 규제 변화〉<sup>13)</sup>

- 과거 손해보험 계약은 FSMA 2000의 모집 관련 행위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GISC(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의 자율규제를 받았으나, 보험소비자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14일부터 금융감독청(FSA)의 보험모집 등 행위규제를 받게 되었음

#### 〈불완전판매와 양극화 규정의 도입 및 폐지〉<sup>14)</sup>

- 1980년대 생명보험업권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Mis-selling)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 1983년 모기지 이자 세금감면제도 도입으로 모기지 양로보험(Mortgage Endowment)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

- 금융당국은 수수료 수취 목적의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1988년 상품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양극화 규정'을 시행하며 독립자문업자(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를 도입함

11) 일반 금융업자와 투자형생명보험 계약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업규범으로 금융서비스시장법과 더불어 시행되었음

12) 손해보험계약과 투자개념이 없는 순수보장성계약, 즉 비투자보험계약(Non-investment Insurance)의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행위규제로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었음

13) 이기형·박정희(2007. 9), 『영국 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보험개발원

14) 서영미(2017. 1), 『영국 독립자문업자(IFA) 개요 및 최근 사업동향』, 금융투자협회

- 양극화 규정에 따라 패키지보험(배당부보험과 변액보험)은 보험회사의 전속채널과 IFA를 통해서만 가입하도록 하고, 전속채널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책임을 지도록 함<sup>15)</sup>
- 1990년 양극화 규정 도입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 강화 등 보험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IFA가 주요 판매채널로 급성장함<sup>16)</sup>

■ 2005년 양극화 규정이 공정거래를 방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영국금융당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동 규정을 폐지함

- 양극화 규정 폐지에 따라 모든 채널이 패키지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됨
- 영국 생명보험 판매채널은 탈양극화 이전에는 IFA, 전속·직급, 방카슈랑스, 직판·기타로 분류되었으나, 탈양극화 이후에는 복수전속채널이 생기면서 분류가 변화함<sup>17)</sup>
  - 탈양극화 이후에는 복수전속채널이 생기면서 IFA는 전체상품을 취급하므로 IFA/WoM(Whole of The Market)으로 분류하며, 전속·직급(Tied Agents/Direct Sales Force)은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므로 전속·복수전속(Single/Multi Tie)으로, 직판·기타(Direct Marketing/Other)는 직접판매(Non-Intermediated)로 분류됨
  - 탈양극화 후 새롭게 생긴 채널로 Basic Advice가 있으며, Basic Advice는 판매자 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FSA가 인증하는 판매자가 주로 스테이크홀더연금,<sup>18)</sup>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판매하는 채널을 뜻함

〈표 5〉 탈양극화 전후 비교

구분	탈양극화 이전	탈양극화 이후
독립	IFA	IFA/whole of market(WoM)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
	-	Limited range
전속	Tied agents/direct sales force	Single/multi tie
	Direct marketing/Others	Non-intermediated
기타	-	Basic advice

자료: AXCO(2011), "United Kingdom Insurance Market Report", p. 45; ABI를 재인용함

15) 이기형·정인영(2012. 9. 24), 『영국의 보험판매채널규제 개선 동인과 영향』, 보험연구원

16) 류성경(2014. 5. 3), 『영국 보험 영업인력의 모집 자격 및 교육제도에 관한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17) 정세창(2012. 6. 15), 『영국 보험산업에서의 판매채널 및 소비자보호 현황과 시사점』

18) 저소득 근로자가 가입하는 DC형 사적연금임

## 6. 현안 이슈: 소매투자형상품에 대한 판매채널 개선을 위한 제도 RDR (Retail Distribution Review)<sup>19)</sup>

■ FSA는 소매투자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 (Retail Distribution Review, 이하, ‘RDR’이라 함)’을 논의하였으며, 201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RDR은 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 자문체계 명확화, 자문비용청구 투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투자형 상품(Retail Investment Product)에만 적용하며, 상품공급업자로부터의 수수료(리베이트) 수취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구조변화를 유도함
- 이 방안으로 인하여 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이 상향<sup>20)</sup>되었으며, 윤리강령 준수 및 매년 35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 수행 등이 요구됨
- 자문유형과 관련하여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독립자문(Independent Advice)’과 제한된 범위의 ‘한정자문(Restricted Advice)’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자문 종류·범위 등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자문비용에 대하여 상품공급업자로부터의 수수료수취(Commission, Cash Rebate)가 금지되고, 고객에게 직접 자문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수취해야 하며, 자문보수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함
- 플랫폼 이용에 관하여서는 자문업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플랫폼업자도 제3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음
- RDR 시행 기대효과로 불완전판매 감소로 인한 보험회사 신뢰 제고가 기대되었으며, 소비자는 제공받는 자문 종류의 비용 비교가 가능해짐<sup>21)</sup>
- RDR에서 요구하는 독립자문서비스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문업자들은 이후 제한자문서비스로 비즈니스모델을 전환하는 등 비즈니스모델이 다변화하였으며, 독립자문서비스의 비중은 2013년 3분기 91%에서 점차 하락세를 보임<sup>22)</sup>

19) 서영미(2017. 1), 『영국 독립자문업자(IFA) 개요 및 최근 사업동향』, 금융투자협회

20) QCF레벨3 → QCF레벨4, 최소자기자본 1만 파운드 → 2만 파운드 또는 투자사업으로 창출되는 연소득의 5% 중 큰 금액(2017년 6월부터 본격 시행)으로 상향됨

21) 이기형·정인영(2012. 9. 24), 『영국의 보험판매채널규제 개선 동인과 영향』, 보험연구원

22) 박선영·이선주(2015. 11. 30),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 2014년 유럽 경제위원회(European Economics)가 독립적으로 RDR의 구현을 검토하였으며,<sup>23)</sup> 2019년 8월, 영국금융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약 400개 회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연말 RDR(Retail Distribution Distribution Review) 및 FAMR(Financial Advice Market Review)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sup>24)</sup>

---

23) FCA(2014. 12. 16), "Post-implementation review of the Retail Distribution Review"

24) FCA(2020. 1. 14), "Evaluation of the Retail Distribution Review and the Financial Advice Market Review"

# [부록] 해외 보험산업 통계

## 1. 미국<sup>1)</sup>

### 가. 생명보험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sup>2)</sup>는 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였으나, 신계약 건수는 모든 상품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3% 감소함
- 2019년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의 경우 2/4분기에는 성장률이 0.0%이지만, 3/4분기에는 신계약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 증가함

〈표 1〉 미국 생명보험 분기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백만 달러, 건)

구분	연납화 신계약 보험료			신계약 건수		
	2018	2019	증가율	2018	2019	증가율
1/4	2,561	2,586	1.0	1,472	1,423	-3.0
2/4	2,784	2,791	0.0	1,464	1,408	-4.0
3/4	2,641	2,688	2.0	1,359	1,325	-3.0
4/4	3,039	-	-	1,398	-	-
합계	7,985	8,065	1.0	4,296	4,156	-3.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9.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19년 3/4분기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정기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지만, 유니버설과 종신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함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2)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계약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2019년 3/4분기 유니버설보험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sup>3)</sup> 순서임
- 신계약 건수의 경우, 유니버설보험과 종신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4% 감소하였지만,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였고, 정기보험은 전년 수준과 동일함  
- 신계약 건수의 비중은 종신보험이 44%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정기,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순서임

〈표 2〉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상품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증가율	시장점유율	증가율	시장점유율
유니버설	2.0	36.0	-5.0	12.0
변액유니버설	2.0	7.0	4.0	1.0
정기	3.0	22.0	0.0	43.0
종신	0.0	35.0	-4.0	44.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9.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Full Service Broker-Dealer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Full Service Broker-Dealer의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12%임
  - 직접판매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0.4% 증가함
  - 개인독립점의 경우,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 소폭 증가하였지만, 신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3)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표 3〉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증가율	신계약 건수 증가율
전속대리점	0.0	-4.0
교차판매대리점	-6.0	-6.0
중개사	2.0	-2.0
개인독립대리점	3.0	13.0
Full Service Broker-Dealer	6.0	12.0
직접판매	4.0	0.4
은행	-1.0	-9.0
직급	-6.0	-11.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9.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를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은 독립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종신보험은 전속설계사 비중이 가장 높음

- 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과 정기보험의 독립설계사 비중은 각각 78%, 60%, 43%임
- 종신보험의 경우, 전속설계사 비중은 65%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설계사 비중이 높음

〈표 4〉 3/4분기 미국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신계약 보험료 및 계약 건수 시장점유율

(단위: %)

구분	연납화 보험료				신계약 건수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전속	독립	직접	기타
유니버설	19.0	78.0	1.0	2.0	33.0	60.0	2.0	5.0
변액유니버설	35.0	60.0	1.0	4.0	62.0	36.0	1.0	1.0
정기	37.0	43.0	7.0	13.0	46.0	30.0	10.0	14.0
종신	65.0	18.0	12.0	5.0	39.0	15.0	33.0	13.0
합계	40.0	48.0	6.0	6.0	42.0	27.0	19.0	12.0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9. 11),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나. 손해보험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1,6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손해액은 1,1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68.9%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sup>1)</sup>		2019	
		2/4	3/4
원수보험료	금액	160,349	166,219
	증가율	3.1	6.2
발생손해액	금액	110,729	114,505
	증가율	5.4	5.1
원수손해율		69.1	68.9
보험영업이익	금액	449	463
	증가율	-79.7	-147.3
계약자 배당금	금액	310	469
	증가율	-1.0	41.7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139	-6
	증가율	-92.7	-99.5
이자 및 배당수익	금액	13,736	13,487
	증가율	-8.7	-4.1
실현자본이익	금액	2,708	3,153
	증가율	45.9	-18.8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6,444	16,641
	증가율	-2.7	-7.3
세전영업이익 <sup>2)</sup>	금액	14,192	13,957
	증가율	-18.8	8.8
당기순이익 <sup>3)</sup>	금액	14,923	15,288
	증가율	-11.9	-1.2
자기자본 (Surplus) <sup>4)</sup>	금액	802,192	812,177
	증가율	5.4	3.9
지급준비금	금액	642,096	649,456
	증가율	3.8	3.4
자기자본이익률 <sup>5)</sup>		7.4	7.5
합산비율		98.9	98.8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이자 및 배당수익 + 기타이익

3) 당기순이익 = 세전영업이익 + 실현자본이익 + 세금

4)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임

5)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2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Nine-Months 2019"

- 손해보험산업의 2019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52억 달러를 기록함
  - 2019년 3/4분기 총보험영업이익은 6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9.5% 감소함
  - 총투자영업이익은 7.3% 감소한 166억 달러임
    - 이자 및 배당수익은 1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함
    - 실현자본이익은 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함
  
- 2019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98.9%에서 0.1%p 하락한 98.8%,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동기 7.4%에서 0.1%p 상승한 7.5%를 기록함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4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4개사	95%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20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2. 영국<sup>4)</sup>

### 가. 생명보험<sup>5)</sup>

####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sup>6)</sup>는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한 602억 1,520만 파운드를 기록함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36억 540만 파운드임
  - 투자형 상품과 역외영업 실적은 하락하였으나, ISA 상품 실적이 크게 상승하며 3/4분기 전체 투자 및 저축성보험의 신계약 보험료가 증가함
- 보장성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2억 8,130만 파운드임
- 연금상품<sup>7)</sup>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5.1% 증가한 245억 8,730만 파운드임
  - 개인가입형 연금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33억 7,820만 파운드임
  - 직장가입형 연금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35억 3,170만 파운드임
  - 신탁형 연금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73.4% 증가한 176억 7,730만 파운드임

■ 2018년 2/4분기 퇴직소득보험<sup>8)</sup>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35억 5,240만 파운드임

4)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5) 영국 손해보험시장 실적은 연도별 자료만 발표되며, 2018년과 2019년의 연간 데이터 비교 및 계절성 판단은 2019년 연간 데이터 출시 이후 발간 예정임

6) 신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방법별로 정기납 신계약 보험료와 일시납 신계약 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7)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개인가입형(Individual Pension)과 직장가입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개인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있음. 직장가입형 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이 있음. 신탁형 연금(Trust-based Pension)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이 해당됨

8)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 소득인출(Income Drawdown) 상품이 있음

〈표 6〉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신계약 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8				2019		
		1/4	2/4	3/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vestments & Saving)	금액	3,314.2	3,585.3	3,334.0	4,274.2	3,128.6	3,351.5	3,605.4
	증가율	-2.9	-8.9	-4.9	-7.7	-5.6	-6.5	8.1
	구성비	5.7	8.9	7.5	2.3	9.2	6.2	6.0
투자형 (Investment)	금액	1,078.1	1,089.4	1,104.9	5,313.7	982.4	1,018.3	988.8
	증가율	-7.5	-0.1	-5.9	-12.6	-8.9	-6.5	-10.5
	구성비	1.9	2.7	2.5	2.8	2.9	1.9	1.6
ISA	금액	1,379.3	1,538.6	1,276.2	3,768.8	1,291.1	1,520.2	1,713.5
	증가율	-1.3	-18.4	-12.4	5.0	-6.4	-1.2	34.3
	구성비	2.4	3.8	2.9	2.0	3.8	2.8	2.8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853.3	953.4	948.2	13,371.8	851.9	809.3	899.3
	증가율	0.9	-0.2	8.9	-6.6	-0.2	-15.1	-5.2
	구성비	1.5	2.4	2.1	7.1	2.5	1.5	1.5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288.6	299.1	271.0	1,115.0	329.8	316.6	281.3
	증가율	6.5	3.5	9.4	4.0	14.3	5.9	3.8
	구성비	0.5	0.7	0.6	0.6	1.0	0.6	0.5
연금 (Pension)	금액	23,842.0	14,685.9	16,943.7	17,101.9	12,054.3	21,826.9	24,587.3
	증가율	230.8	77.7	104.4	-8.8	-49.4	48.6	45.1
	구성비	41.2	36.4	38.1	9.1	35.5	40.3	40.8
개인가입형 (Individual)	금액	5,121.1	4,446.8	3,745.8	14,073.1	3,737.0	3,577.3	3,378.2
	증가율	20.3	-4.5	-19.6	39.4	-27.0	-19.6	-9.8
	구성비	8.9	11.0	8.4	7.5	11.0	6.6	5.6
직장가입형 (Work-based)	금액	2,721.0	3,884.7	3,004.8	41,591.5	3,086.2	4,670.0	3,531.7
	증가율	6.2	14.1	-49.6	87.4	13.4	20.2	17.5
	구성비	4.7	9.6	6.8	22.2	9.1	8.6	5.9
신탁형 (Trust-based)	금액	15,999.8	6,354.2	10,193.0	72,766.5	5,231.1	13,579.5	17,677.3
	증가율	307.7	0.2	161.3	42.6	-67.3	113.7	73.4
	구성비	27.7	15.7	22.9	38.9	15.4	25.1	29.4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3,227.7	3,546.9	3,637.4	13,812.9	3,289.7	3,514.5	3,552.4
	증가율	-2.3	1.3	6.1	1.6	1.9	-0.9	-2.3
	구성비	5.6	8.8	8.2	7.4	9.7	6.5	5.9
전체	금액	57,825.1	40,384.3	44,459.0	187,189.4	33,982.1	54,184.1	60,215.2
	증가율	104.0	17.7	32.7	28.8	-41.2	34.2	35.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2017년부터 투자 및 저축성 보험 상품 통계에 ISA 실적이 집계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

■ 2019년 3/4분기 정기납 신계약 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sup>9)</sup>이 가장 높고,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sup>10)</sup>, 無자문(Non-Advised)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3.5%p 상승한 74.7%임
  - 종목별로는 그룹 보장성보험(93.9%), 직장가입형 연금보험(80.0%), 역외영업(72.4%) 순임
- 정기납 신계약 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0.3%p 하락한 16.0%임
  - 종목별로는 신탁형 연금보험(55.8%), 투자 및 저축성보험(25.1%), 개인 보장성보험(24.8%) 순으로 나타남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계약 보험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3.2%p 하락한 9.3%임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74.9%), 역외영업(24.5%), 개인 보장성보험(19.2%) 순임

■ 2019년 3/4분기 일시납 신계약 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계약 보험료 중 독립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한 68.0%임
  - 종목별로는 개인가입형 연금보험(82.5%), 직장가입형 연금보험(72.1%), 투자 및 저축성보험(72.0%) 순임
- 일시납 신계약 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의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0%p 상승한 15.7%임
  - 종목별로는 역외영업(30.9%), 투자 및 저축성보험(20.9%), 소득인출보험(19.3%) 순임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계약 보험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0%p 상승한 16.3%임
  - 종목별로는 신탁형 연금(86.0%), 종신연금보험(69.4%), 소득인출보험(18.7%) 순임

9)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10)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표 7〉 2019년 3/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sup>1)</sup> (Restricted Advice)		無자문 <sup>2)</sup>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성	0.0	72.0	25.1	20.9	74.9	7.1
개인가입형 연금	67.1	82.5	17.3	12.6	15.6	4.9
직장가입형 연금	80.0	72.1	12.3	11.2	7.7	16.6
신탁형 연금	30.8	14.0	55.8	0.0	13.4	86.0
역외영업	72.4	69.0	3.1	30.9	24.5	0.1
개인보장	56.1	-	24.8	-	19.2	-
그룹보장	93.9	-	0.3	-	5.8	-
종신연금	-	29.4	-	1.2	-	69.4
소득인출	-	62.0	-	19.3	-	18.7
전체	74.7	68.0	16.0	15.7	9.3	16.3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 설계를 포함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나. 손해보험<sup>11)</sup>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18년 영국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999억 2,200만 파운드임

○ 재보험을 제외한 2018년 원수보험료는 710억 1,7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음

■ 2018년 원수보험료는 모든 종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종목별로 자동차보험이 4.0% 증가한 174억 7,800만 파운드, 재물보험이 4.7% 증가한 136억 6,200만 파운드, 상해 및 질병보험이 1.3% 증가한 61억 7,500만 파운드, 배상책

11) 영국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며, 최근 2018년 연간통계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통계를 게재함

임보험이 8.6% 증가한 72억 8,700만 파운드, 재물책임보험은 20.5% 증가한 63억 3,500만 파운드임

- 재보험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89억 500만 파운드, 해외 원보험은 17.8% 증가한 200억 8,000만 파운드를 기록함

〈표 8〉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차	14,516	14,239	15,460	15,424	16,806	17,478
재물	13,552	12,918	13,237	12,427	13,045	13,662
상해 및 질병	6,143	6,003	7,066	6,076	6,098	6,175
배상책임	6,116	6,336	7,749	5,891	6,712	7,287
재물책임	4,753	4,870	5,080	5,299	5,257	6,335
해외 원보험	14,718	15,323	15,601	15,484	17,039	20,080
소계	59,797	59,689	64,193	60,601	64,957	71,017
재보험	21,965	21,419	22,803	23,402	23,905	28,905
전체 합계	81,762	81,107	86,995	84,003	88,862	99,922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비중〉

- 2018년 손해보험 판매채널은 전년과 비교하여 직접판매 및 기타 채널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전속대리점, 독립중개인,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감소하였음
- 2018년 독립중개인의 판매 비중이 50.6%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1.1%p 감소하며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직접판매 비중은 34.0%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전년 대비 3.0%p 증가함

〈표 9〉 영국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직접판매	전속대리점	독립중개인	방카슈랑스	기타
2009	24.5	6.4	56.0	12.4	0.7
2010	24.1	6.7	56.2	12.5	0.4
2011	27.5	4.7	54.2	12.9	0.6
2012	26.7	4.6	53.8	14.0	0.9
2013	26.9	4.5	52.6	14.0	2.0
2014	27.2	4.3	52.7	14.0	1.9
2015	28.3	4.3	52.4	13.2	1.8
2016	28.0	4.5	52.0	13.1	2.4
2017	31.0	4.5	51.7	12.3	0.4
2018	34.0	4.4	50.6	10.9	0.5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8년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직접 판매(61.0%), 재산보험에서는 독립중개사(34.0%), 여행보험에서는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60.0%), 기타 개인보험에서는 직접 판매(40.0%)가 가장 높았음

○ 자동차 보험 판매 비중은 직접판매(61.0%), 독립중개사(32.0%) 순이며, 나머지 채널의 판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판매 비중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보험 판매 비중은 독립중개사(34.0%), 직접 판매(30.0%),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2.0%) 순임

- 전년 동기 대비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의 비중이 2.0%p 하락하였으며, 직접 판매의 비중이 3.0%p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행보험 판매 비중은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60.0%), 독립중개사(16.0%), 직접 판매(1.0%) 순임

- 전년 동기 대비 유틸리티·소매·이익집단의 비중이 4.0%p, 기타 비중이 5.0%p 하락한 반면, 독립중개사 비중은 5.0%p, 직접 판매 비중은 5.0%p 상승함

○ 기타 개인보험 판매 비중은 직접 판매(40.0%), 독립중개사(36.0%), 유틸리티·소매·이익집단(17.0%) 순임

- 전년 동기 대비 독립중개사의 비중이 10.0%p 하락한 반면, 직접 판매의 비중이 12.0%p 상승함

〈표 10〉 영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중개사	회사대리점	은행 및 주택금융조합	직접 판매	유틸리티·소매·이익집단	기타	
자동차	2017	31.0	1.0	3.0	60.0	4.0	0.0
	2018	32.0	1.0	3.0	61.0	3.0	0.0
재산	2017	34.0	6.0	24.0	27.0	9.0	0.0
	2018	34.0	6.0	22.0	30.0	8.0	0.0
여행	2017	11.0	1.0	60.0	6.0	11.0	10.0
	2018	16.0	1.0	60.0	11.0	7.0	5.0
기타 개인 보험	2017	46.0	2.0	4.0	28.0	19.0	0.0
	2018	36.0	3.0	4.0	40.0	17.0	0.0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 2018년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96.2%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함

○ 2018년 손해율은 61.6%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고, 사업비율은 34.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함

〈표 11〉 영국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손해율	65.5	65.2	64.3	61.8	60.5	61.6
사업비율	32.3	32.4	33.5	37.3	34.5	34.6
합산비율	97.8	97.6	97.8	99.1	95.0	96.2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계약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계약은 크게 4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 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 및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개인가입형 연금
Work-based Pension	직장가입형 연금
Trust-based Pension	신탁형 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3. 일본<sup>12)</sup>

####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19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0조 3,11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확대되었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확대됨
- FY2019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7조 6,358억 엔임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감소세로 전환됨

〈표 12〉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sup>1),2)</sup>		FY2018				FY2019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107,951	106,902	112,309	433,299	105,040	103,110
	증가율	4.3	4.9	1.6	3.9	-1.0	-4.5
생명보험	금액	84,558	83,702	89,033	339,159	80,096	78,567
	증가율	4.3	5.0	3.7	4.5	-2.2	-7.1
손해보험	금액	23,393	23,200	23,276	94,140	24,945	24,543
	증가율	4.4	4.4	-5.4	1.5	2.8	4.9
지급보험금	금액	76,017	87,049	84,209	325,181	77,081	76,358
	증가율	1.1	11.1	1.8	2.9	-1.1	0.4
생명보험	금액	62,146	66,374	68,310	263,207	64,323	64,035
	증가율	-3.3	0.6	-1.9	-2.0	-3.1	3.0
손해보험	금액	13,871	20,675	15,899	61,974	12,758	12,323
	증가율	27.1	67.2	22.0	30.7	10.7	-11.2

주: 1) 전년 동기 대비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

12) 일본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부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 나. 생명보험<sup>13)</sup>

### 〈신계약 가입금액〉

■ FY2019 2/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한 15조 5,942억 엔임

- 개인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한 13조 2,518억 엔을 기록함
  -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4%, 28.4% 감소함
  - 양로보험,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12.2% 감소함
  - 생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1,468억 엔으로 집계됨
- 개인연금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1조 3,143억 엔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감소, 6.5% 증가한 1조 859억 엔, 2,283억 엔을 기록함
- 단체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1조 281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감소하였으나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함

13)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종목에 따라 분기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목별 생명보험 변화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계약 가입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여기서 말하는 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의미함

〈표 13〉 일본 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

(단위: 억 엔, %)

구분 <sup>1)</sup>		FY2018				FY2019	
		2/4	3/4	4/4	연간	1/4	2/4
개인보험	금액	173,333	172,076	181,704	703,248	136,347	132,518
	증가율	11.8	9.9	12.8	12.3	-22.6	-23.5
	구성비	87.2	87.2	87.6	87.5	85.3	85.0
사망	금액	144,317	140,407	152,617	582,446	107,444	107,335
	증가율	13.4	9.3	14.2	12.9	-26.0	-25.6
	구성비	72.6	71.1	73.6	72.5	67.2	68.8
종신보험	금액	32,114	33,430	33,197	129,092	30,721	28,460
	증가율	4.5	11.7	3.5	8.0	1.2	-11.4
정기보험	금액	92,050	88,121	100,744	377,307	63,437	65,899
	증가율	27.9	23.1	29.1	27.7	-34.2	-28.4
생사혼합	금액	26,854	28,507	26,741	110,786	27,017	23,716
	증가율	3.8	13.3	7.6	9.7	-5.8	-11.7
	구성비	13.5	14.4	12.9	13.8	16.9	15.2
양로보험 <sup>2)</sup>	금액	10,294	10,521	9,930	41,274	10,460	7,230
	증가율	-1.8	16.1	0.6	5.6	-0.7	-29.8
기타	금액	12,886	13,804	12,755	54,120	11,817	11,312
	증가율	1.6	7.7	0.0	7.8	-19.5	-12.2
생존	금액	2,162	3,162	2,346	10,016	1,886	1,468
	증가율	14.3	7.7	-9.5	6.9	-19.6	-32.1
	구성비	1.1	1.6	1.1	1.2	1.2	0.9
개인연금보험	금액	13,479	14,109	13,557	53,293	12,229	13,143
	증가율	14.6	19.9	3.6	10.2	0.7	-2.5
	구성비	6.8	7.1	6.5	6.6	7.7	8.4
정액연금	금액	11,335	11,849	11,697	45,092	10,271	10,859
	증가율	16.0	22.6	0.3	11.9	0.6	-4.2
변액연금	금액	2,144	2,259	1,861	8,201	1,959	2,283
	증가율	7.8	7.3	0.0	1.6	1.1	6.5
단체보험	금액	11,974	11,252	12,228	47,197	11,219	10,281
	증가율	31.4	12.4	-36.0	4.4	-4.5	-14.1
	구성비	6.0	5.7	5.9	5.9	7.0	6.6
단체정기 <sup>3)</sup>	금액	8,161	4,593	7,154	25,648	4,182	5,156
	증가율	106.9	-35.5	0.3	0.0	-27.1	-36.8
단체신용생명	금액	3,813	6,659	5,072	21,548	7,038	5,122
	증가율	-26.2	129.9	0.0	32.2	17.2	34.3
합계	금액	198,786	197,436	207,490	803,738	159,795	155,942
	증가율	13.0	10.7	7.4	11.0	-20.1	-2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하였는데,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또는 고도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지급률>

- FY2019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sup>14)</sup>은 전년 동기 대비 8.0%p 증가한 81.5%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7조 8,567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6조 4,035억 엔을 나타냄

〈표 14〉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1/4	2/4	3/4	4/4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81,866	84,558	83,702	89,033	80,095	78,567
	증가율 <sup>1)</sup>	5.3	4.3	5.0	3.7	-2.2	-7.1
지급보험금	금액	66,377	62,146	66,374	68,310	64,323	64,035
	증가율	-3.4	-3.3	0.6	-1.9	-3.1	3.0
지급률		81.1	73.5	79.3	76.7	80.3	81.5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자산운용〉

- FY2019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390조 3,138억 엔에서 394조 8,190억 엔으로 증가함
- 운용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단기자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2.2%, 0.4%에서 2.4%, 0.5%로 상승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대출금의 비중은 전분기 8.0%에서 7.9%로 하락함
  - 한편, 매입금전채권,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0.5%, 1.5%임
- 국채, 지방채의 감소로 총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82.8%에서 82.5%로 하락함
  - 국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38.2%에서 37.8%로 하락함
  - 반면 주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에서 5.4%로 증가하였으며, 외화증권의 비중은 전분기와 같은 25.4%임

14)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표 15〉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2/4		3/4		4/4		1/4		1/2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82,691	2.1	86,997	2.3	89,949	2.3	86,882	2.2	93,526	2.4
단기자금	16,664	0.4	18,908	0.5	16,549	0.4	14,579	0.4	18,309	0.5
매입금전채권	19,767	0.5	19,875	0.5	20,007	0.5	17,900	0.5	20,151	0.5
금전신탁	60,758	1.6	59,922	1.6	61,714	1.6	62,575	1.6	68,571	1.7
유가증권	3,200,278	82.7	3,152,976	82.1	3,203,096	82.6	3,230,989	82.8	3,257,836	82.5
- 국채	1,468,183	37.9	1,476,945	38.5	1,482,231	38.2	1,490,753	38.2	1,493,243	37.8
- 지방채	116,686	3.0	113,749	3.0	109,401	2.8	107,609	2.8	106,340	2.7
- 회사채	268,929	7.0	270,445	7.0	271,082	7.0	275,712	7.1	281,856	7.1
- 주식	237,532	6.1	213,020	5.5	217,828	5.6	208,056	5.3	213,210	5.4
- 외화증권	951,334	24.6	929,048	24.2	965,262	24.9	990,852	25.4	1,003,163	25.4
대출금	327,174	8.5	321,051	8.4	318,786	8.2	313,785	8.0	311,596	7.9
부동산	59,963	1.5	60,450	1.6	60,442	1.6	60,453	1.5	60,444	1.5
운용자산 <sup>2)</sup>	3,795,170	98.1	3,756,952	97.9	3,803,210	98.1	3,820,457	97.9	3,865,802	97.9
비운용자산	73,889	1.9	82,030	2.1	74,736	1.9	82,681	2.1	82,388	2.1
총자산 <sup>3)</sup>	3,869,059	100.0	3,838,982	100.0	3,877,946	100.0	3,903,138	100.0	3,948,19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9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한 3,445억 엔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0.8%p 하락한 5.3%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 0.4%에서 0.3%로 하락함

○ 자본은 26조 1,325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 6.7%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394조 8,190억 엔을 기록함

〈표 16〉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1/4	2/4	3/4	4/4	1/4	2/4
당기순이익	금액	3,735	4,390	2,982	6,357	3,708	3,445
	증가율 <sup>1)</sup>	18.7	12.7	-29.0	38.1	-0.7	-21.5
자본	금액	240,640	238,807	220,918	250,663	244,940	261,325
	증가율 <sup>2)</sup>	-0.2	-0.8	-7.5	13.5	-2.3	6.7
총자산	금액	3,836,342	3,869,059	3,838,983	3,877,946	3,903,138	3,948,190
	증가율 <sup>2)</sup>	0.6	0.9	-0.8	1.0	0.6	1.2
자본이익률 <sup>3)</sup>		6.2	7.4	5.4	10.1	6.1	5.3
총자산이익률 <sup>3)</sup>		0.4	0.5	0.3	0.7	0.4	0.3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다. 손해보험

### 〈원수보험료〉

■ FY2019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2조 4,543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8%, 8.3%, 6.8% 증가한 4,811억 엔, 519억 엔, 172억 엔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5.1% 증가한 1조 228억 엔, 2,452억 엔으로 집계됨
- 상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2,453억 엔이며, 특종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907억 엔을 기록함

〈표 17〉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sup>2)3)</sup>		FY2018				FY2019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4,049	4,204	3,867	15,667	3,893	4,811
	증가율	13.2	12.3	-2.6	6.2	9.7	18.8
	구성비	17.3	18.1	16.6	16.6	15.6	19.6
해상	보험료	479	487	513	2,072	594	519
	증가율	2.7	5.6	-8.0	2.2	0.0	8.3
	구성비	2.0	2.1	2.2	2.2	2.4	2.1
운송	보험료	161	172	173	691	195	172
	증가율	4.3	8.2	-0.5	4.7	5.4	6.8
	구성비	0.7	0.7	0.7	0.7	0.8	0.7
자동차	보험료	10,096	10,228	10,391	41,300	10,682	10,228
	증가율	0.7	0.9	-2.8	-0.0	0.9	1.3
	구성비	43.2	44.1	44.6	43.9	42.8	41.7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333	2,433	2,515	9,739	2,595	2,452
	증가율	-3.4	4.6	5.6	0.1	5.6	5.1
	구성비	10.0	10.5	10.8	10.3	10.4	10.0
상해	보험료	2,468	2,202	2,229	9,770	2,799	2,453
	증가율	5.9	-1.9	-17.5	-2.3	-2.5	-0.6
	구성비	10.6	9.5	9.6	10.4	11.2	10.0
특종	보험료	3,806	3,474	3,590	14,901	4,187	3,907
	증가율	11.1	10.0	-13.1	4.2	3.9	2.7
	구성비	16.3	15.0	15.4	15.8	16.8	15.9
합계	보험료	23,393	23,200	23,276	94,140	24,945	24,543
	증가율	4.4	4.4	-5.4	1.5	2.8	4.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지급률〉

■ FY2019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9.1%p 감소한 50.2%를 기록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2조 4,543억 엔이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1조 2,323억 엔임

〈표 18〉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8				FY2019	
		1/4	2/4	3/4	4/4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24,271	23,393	23,200	23,276	24,945	24,543
	증가율 <sup>1)</sup>	3.0	4.4	4.4	-5.4	2.8	4.9
지급보험금	금액	11,529	13,871	20,675	15,899	12,758	12,323
	증가율	3.6	27.1	67.2	22.0	10.7	-11.2
지급률 <sup>2)</sup>		47.5	59.3	89.1	68.3	51.1	50.2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자산운용〉

■ FY2019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 30조 8,513억 엔에서 31조 4,416억 엔으로 증가함

○ 운용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6.5%, 0.9%에서 7.5%, 1.0%로 상승하였으며,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 대출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0.2, 0.2%, 4.4%임

○ 반면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2.7%에서 2.6%로 하락함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 외화증권의 감소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71.8%에서 71.2%로 하락함

- 총자산 대비 국채, 외화증권은 각각 전분기 14.2%, 27.5%에서 13.9%, 26.6%로 하락하였으며, 지방채, 회사채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와 같은 1.0%, 8.6%임

- 주식, 기타증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19.5%, 1.1%에서 19.7%, 1.4%로 상승함

〈표 19〉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sup>2)</sup>	FY2018						FY2019			
	2/4		3/4		4/4		1/4		2/4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21,442	6.6	17,864	5.7	21,268	6.6	20,754	6.5	24,437	7.5
단기자금	0	0.0	0	0.0	1	0.0	0	0.0	1	0.0
환매조건부채권	820	0.3	530	0.2	730	0.2	630	0.2	630	0.2
매입금전채권	2,370	0.7	1,428	0.5	1,400	0.4	2,893	0.9	3,313	1.0
금전신탁	1,200	0.4	777	0.3	658	0.2	590	0.2	632	0.2
유가증권	248,936	76.4	233,895	75.3	234,482	72.6	230,476	71.8	231,938	71.2
- 국채	47,970	14.7	47,598	15.3	46,446	14.4	45,583	14.2	45,309	13.9
- 지방채	3,239	1.0	3,244	1.0	3,216	1.0	3,204	1.0	3,303	1.0
- 회사채	26,540	8.1	26,703	8.6	26,867	8.3	27,487	8.6	28,127	8.6
- 주식	77,980	23.9	64,443	20.7	66,468	20.6	62,568	19.5	64,073	19.7
- 외화증권	89,948	27.6	88,790	28.6	88,237	27.3	88,176	27.5	86,595	26.6
- 기타증권	3,259	1.0	3,117	1.0	3,248	1.0	3,458	1.1	4,531	1.4
대출금	14,943	4.6	15,403	5.0	14,362	4.4	14,022	4.4	14,317	4.4
부동산	8,619	2.6	8,600	2.8	8,648	2.7	8,585	2.7	8,536	2.6
운용자산	298,330	91.6	278,496	89.6	281,604	87.1	278,009	86.6	283,874	87.1
비운용자산 <sup>2)</sup>	27,486	8.4	32,184	10.4	33,504	10.4	30,503	9.5	30,541	9.4
총자산	325,817	100.0	310,681	100.0	315,108	97.5	308,513	96.1	314,416	96.5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9 상반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8.1% 증가한 1,785억 엔임

■ 자본이익률은 FY2018 하반기에 비해 11.8%p 하락한 4.7%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이익률은 FY2018 하반기 4.0%에서 1.1%로 하락함

○ 자본은 FY2018 하반기보다 1.5% 감소한 7조 5,632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은 FY2018 하반기보다 0.2% 감소한 31조 4,416억 엔을 기록함

〈표 20〉 일본 손해보험 실적<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7		FY2018		FY201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당기순이익	금액	2,964	3,819	417	6,348	1,785
	증가율 <sup>2)</sup>	4.1	15.5	-85.9	66.2	328.1
자본	금액	80,111	80,139	80,308	76,771	75,632
	증가율 <sup>3)</sup>	8.5	0.0	0.2	-4.4	-1.5
총자산	금액	323,052	323,144	325,817	315,108	314,416
	증가율 <sup>3)</sup>	2.4	0.0	0.8	-3.3	-0.2
자본이익률 <sup>4)</sup>		7.4	9.5	1.0	16.5	4.7
총자산이익률 <sup>4)</sup>		1.8	2.4	0.3	4.0	1.1

주: 1)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반기별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만을 발표하고 있음

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3) 전반기대비 증가율임

4) 연율화 수치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계약 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단체연금보험,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4. 중국<sup>15)</sup>

###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19년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8,98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함
  - 인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 1/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전분기 대비 둔화됨
- 2019년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3,179억 위안임
  -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소폭 하락함
- 2019년 3/4분기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256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2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16,322	9,215	8,983
	증가율 <sup>1)</sup>	15.9	11.2	8.3
인보험	금액	13,369	6,275	6,218
	증가율	18.0	12.1	8.5
손해보험	금액	2,953	2,940	2,765
	증가율	7.3	9.3	7.9
지급보험금	금액	3,318	2,914	3,179
	증가율	1.5	7.2	1.2
인보험	금액	1,891	1,423	1,557
	증가율	-6.1	5.7	-3.9
손해보험	금액	1,428	1,490	1,622
	증가율	13.8	8.5	6.6
사업비	금액	1,268	1,268	1,256
	증가율	31.6	15.5	6.9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15)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자산운용〉

- 2019년 3/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2.3% 증가한 19조 9,601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17조 7,772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2조 1,829억 위안임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으나 채권 및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함
  - 예치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0.9%p 하락한 12.6%를 기록하였으나 총자산 대비 채권 및 기타 자산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30.7%, 33.6%에서 30.8%, 34.4%로 상승함
  - 한편, 주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와 같은 11.2%를 기록함

〈표 22〉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운용자산계	금액	170,554	173,672	177,772
	증가율 <sup>2)</sup>	3.9	1.8	2.4
	구성비	89.3	89.1	89.1
예치금	금액	26,189	26,335	25,213
	증가율	7.5	0.6	-4.3
	구성비	13.7	13.5	12.6
채권	금액	56,722	59,830	61,427
	증가율	0.6	5.5	2.7
	구성비	29.7	30.7	30.8
주식 <sup>3)</sup>	금액	21,126	21,904	22,377
	증가율	9.9	3.7	2.2
	구성비	11.1	11.2	11.2
기타 자산 <sup>4)</sup>	금액	66,517	65,603	68,755
	증가율	3.7	-1.4	4.8
	구성비	34.8	33.6	34.4
비운용자산계 <sup>5)</sup>	금액	20,528	21,354	21,829
	증가율	6.8	4.0	2.2
	구성비	10.7	10.9	10.9

〈표 22〉 계속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총자산	금액	191,082	195,026	199,601
	증가율	4.2	2.1	2.3
	구성비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 기준임  
 2) 전분기 대비임  
 3) 주식은 주식형 펀드를 포함함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이 있음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급,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나. 인보험<sup>16)</sup>

### 〈수입보험료〉

■ 2019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6,2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함

■ 2019년 3/4분기 인보험 중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하락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상승함

○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1.8% 증가한 4,227억 위안, 289억 위안을 기록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1,70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함

16)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됨.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투자형 상품에는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있음.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표 23〉 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인보험	보험료	13,369	6,275	6,218
	증가율 <sup>1)</sup>	18.0	12.1	8.5
생명보험	보험료	10,863	4,164	4,227
	증가율	14.3	7.9	2.4
건강보험	보험료	2,172	1,804	1,701
	증가율	39.1	23.7	29.1
상해보험	보험료	334	307	289
	증가율	24.1	10.6	1.8

주: 1)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9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55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하락함
- 인보험 중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8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하락하였으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은 각각 617억 위안, 7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0%, 6.3% 증가함

〈표 24〉 인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인보험	보험금	1,891	1,423	1,557
	증가율 <sup>1)</sup>	-6.1	5.7	-3.9
생명보험	보험금	1,315	837	865
	증가율	-16.2	-9.1	-21.4
건강보험	보험금	504	516	617
	증가율	31.3	42.8	37.0
상해보험	보험금	72	71	75
	증가율	18.2	11.1	6.3

주: 1)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4.9%로 전분기 대비 2.3%p 상승함

○ 상위 5개사는 China Life, China Pingan Life, CPIC, Huaxia Life 및 Taiping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1.2%, 15.2%, 7.2%, 6.6%, 4.7%임

○ 한편,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47.4%에서 45.1%로 하락함

〈표 25〉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sup>

(단위: %)

구분	2019		
	1/4	2/4	3/4
상위 5사 점유율	54.3	52.6	54.9
나머지 회사 점유율	45.7	47.4	45.1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19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5.3%로 전분기에 비해 1.7%p 하락함

○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922억 위안에서 719억 위안으로 하락하였으나 자본은 1조 3,109억 위안에서 1조 3,665억 위안으로 상승함

〈표 26〉 생명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당기순이익 <sup>1)</sup>	650	922	719
자본 <sup>2)</sup>	12,760	13,109	13,665
자본이익률	5.1	7.0	5.3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sup>17)</sup>〉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7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함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 중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및 기타 보험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비중은 상승함
-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농업보험 및 기타 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4.0%, 0.8%, 1.0%, 6.5%, 9.9%, 4.5%에서 3.8%, 0.7%, 0.9%, 6.3%, 5.0%, 3.7%로 하락하였으나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대비 3.4%p, 3.0%p 상승한 70.5%, 9.2%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수입보험료<sup>1)</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2,953	2,940	2,765
	증가율 <sup>2)</sup>	7.3	9.3	7.9
기업재산보험	보험료	173	118	106
	비중	5.9	4.0	3.8
가계재산보험	보험료	29	23	19
	비중	1.0	0.8	0.7
자동차보험	보험료	1,994	1,972	1,949
	비중	67.5	67.1	70.5
기술보험	보험료	43	29	25
	비중	1.5	1.0	0.9
책임보험	보험료	227	192	173
	비중	7.7	6.5	6.3
보증보험	보험료	190	183	255
	비중	6.4	6.2	9.2

17)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표 27〉 계속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농업보험	보험료	155	291	137
	비중	5.2	9.9	5.0
기타 보험 <sup>3)</sup>	보험료	142	132	101
	비중	4.8	4.5	3.7

주: 1) 종목별 수입보험료가 2019년부터 공개되기 때문에 종목별 수입보험료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계산할 수 없음

2) 전년 동기 대비임

3) 기타 보험은 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이 있음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지급보험금〉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62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함

〈표 28〉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1,428	1,490	1,622
	증가율 <sup>1)</sup>	13.8	8.5	6.6

주: 1)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5.9%로 전분기 대비 4.6%p 상승함

○ 상위 5개사는 PICC, China Pingan P&C, CPIC P&C, China Life P&C, China Continent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6.5%, 20.0%, 10.2%, 5.8%, 3.5%임

○ 한편, 나머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8.4%에서 24.1%로 하락함

〈표 29〉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sup>

(단위: %)

구분	2019		
	1/4	2/4	3/4
상위 5사	72.9	71.3	75.9
나머지 회사	27.1	28.7	24.1

주: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당기순이익, 자본, 자본이익률〉

- 2019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은 2.0%로 전분기에 비해 2.3%p 하락함
-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230억 위안에서 110억 위안으로 하락하였으며, 자본은 전분기 5,325억 위안에서 5,466억 위안으로 상승함

〈표 30〉 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9		
	1/4	2/4	3/4
당기순이익 <sup>1)</sup>	107	230	110
자본 <sup>2)</sup>	5,263	5,325	5,466
자본이익률	2.0	4.3	2.0

주: 1) 당기순이익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기말잔액 기준임  
 자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중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자산운용 분석을 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 및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사용함
  - 보험회사의 그룹별 시장점유율, 당기순이익, 자본 및 자본이익률 분석을 위해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지급능력정보공개(償付能力信息披露)를 사용함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 및 손해보험을 종목별로 분석함
  - 인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손해보험은 기업재산보험, 가계재산보험, 자동차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농업보험, 기타보험(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으로 분류해 기술함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5. 호주

###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19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확대됨

■ FY2019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151억 달러임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이 증가함

〈표 31〉 호주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AUD 백만, %)

구분 <sup>1)2)</sup>		FY2018			FY2019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20,641	20,466	84,472	17,989	20,692	18,887
	증가율	-2.5	-0.2	-0.2	-5.0	-15.3	-8.5
생명보험	금액	9,917	9,327	40,361	8,025	7,691	7,411
	증가율	-10.1	-7.9	-4.0	-12.1	-35.9	-25.3
손해보험	금액	10,724	11,139	44,111	9,964	13,001	11,476
	증가율	5.9	7.4	3.6	1.6	4.5	7.0
지급보험금	금액	15,733	16,392	61,336	15,608	13,680	15,125
	증가율	3.3	1.5	-1.3	13.8	-11.7	-3.9
생명보험	금액	10,879	10,421	41,119	9,524	8,571	9,652
	증가율	4.5	-5.6	-2.8	11.5	-24.0	-11.3
손해보험	금액	4,854	5,971	20,217	6,084	5,109	5,473
	증가율	0.9	16.8	1.7	17.6	21.1	12.8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호주 APRA

## 나. 생명보험

### 〈지급률〉

- FY2019 3/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p 상승한 111.4%를 기록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5.3% 감소한 7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한 97억 달러를 기록함

〈표 32〉 호주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AUD 백만, %)

구분		FY2018			FY2019		
		2/4	3/4	4/4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11,990	9,917	9,327	8,025	7,691	7,411
	증가율 <sup>1)</sup>	-6.0	-10.1	-7.9	-12.1	-35.9	-25.3
지급보험금	금액	11,276	10,879	10,421	9,524	8,571	9,652
	증가율	-0.8	4.5	-5.6	11.5	-24.0	-11.3
지급률 <sup>2)</sup>		94.0	109.7	111.7	101.9	118.7	111.4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호주 APRA

### 〈자산운용〉

- FY2019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1,961억 달러에서 1,975억 달러로 증가함
- 총자산 중 현금 및 예금, 주식,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분기 4.6%, 45.0%, 3.9%에서 3.9%, 44.7%, 3.6%로 하락함
- 채권과 재보험자산의 비중은 각각 전분기 37.2%, 5.2%에서 37.4%, 5.6%로 상승함

〈표 33〉 호주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단위: AUD 백만, %)

구분 <sup>2)</sup>	FY2018				FY2019					
	3/4		4/4		1/4		2/4		3/4	
	금액	구성비								
현금 및 예금	10,990	4.8	10,857	5.0	9,914	4.4	8,980	4.6	7,782	3.9
투자자산	201,197	88.3	191,404	87.9	200,668	88.4	169,840	86.6	170,595	86.4
- 채권	76,824	33.7	77,397	35.5	79,472	35.0	72,843	37.2	73,955	37.4
- 주식	113,663	49.9	103,059	47.3	109,749	48.4	88,294	45.0	88,360	44.7
- 부동산	10,131	4.4	10,279	4.7	10,608	4.7	7,715	3.9	7,206	3.6
- 기타	579	0.3	670	0.3	840	0.4	989	0.5	1,075	0.5
기타자산	7,840	3.4	7,355	3.4	7,228	3.2	7,143	3.6	8,001	4.1
재보험자산	7,905	3.5	8,224	3.8	9,154	4.0	10,103	5.2	11,129	5.6
총자산	227,932	100.0	217,841	100.0	226,965	100.0	196,066	100.0	197,506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호주 APRA

〈생명보험 실적〉

■ FY2019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5.2% 감소한 4천 1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4.9%p 하락한 -0.7%를 기록함

○ 자본은 224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반면,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한 1,975억 달러를 기록함

〈표 34〉 호주 생명보험 실적

(단위: AUD 백만, %)

구분		FY2018			FY2019		
		2/4	3/4	4/4	1/4	2/4	3/4
당기순이익	금액	536	162	-119	512	233	-41
	증가율 <sup>1)</sup>	-10.2	-65.2	-117.5	45.5	-56.6	-125.2
자본	금액	22,705	22,419	22,133	22,174	22,519	22,436
	증가율 <sup>2)</sup>	-2.5	-1.3	-1.3	0.2	1.6	-0.4
총자산	금액	227,832	227,932	217,841	226,965	196,066	197,506
	증가율 <sup>2)</sup>	1.2	0.0	-4.4	4.2	-13.6	0.7
자본이익률 <sup>3)</sup>		9.3	2.9	-2.1	9.2	4.2	-0.7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

자료: 호주 APRA

## 다. 손해보험

### 〈원수보험료〉

- FY2019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107억 달러로 집계됨
  -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종목별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9억 달러로 집계됨
  - 기업성 재산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13억 달러로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임
- 가계성 보험이 전체 원수보험료의 46.4%를 차지함
  - 가계성 재산보험과 개인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1.7%, 24.7%를 기록함

### 〈손해율〉

- FY2019 3/4분기 손해보험 보유손해율은 대비 4%p 상승한 66%를 기록함
  - FY2019 3/4분기 기준 자동차 배상책임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유손해율은 각각 99%, 106%를 기록함
- FY2019 3/4분기 손해보험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5%p 상승한 92%를 기록함
  - FY2019 3/4분기 기준 자동차 배상책임보험과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11%, 120%를 기록함

〈표 35〉 호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AUD 백만, %)

구분 <sup>2)3)</sup>		FY2018			FY2019		
		3/4	4/4	연간	1/4	2/4	3/4
가계성 재산보험	보험료	2,188	2,317	8,828	2,189	2,336	2,330
	증가율	5.3	7.7	6.2	3.9	5.4	6.5
	구성비	21.9	22.3	21.5	23.5	19.3	21.7
개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2,508	2,418	9,925	2,602	2,645	2,659
	증가율	6.2	6.7	7.1	4.9	5.0	6.0
	구성비	25.1	23.2	24.2	28.0	21.9	24.7
기업성 재산보험	보험료	1,153	1,256	4,451	823	1,484	1,315
	증가율	14.8	11.7	10.8	9.6	14.9	14.1
	구성비	11.5	12.1	10.9	8.8	12.3	12.2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622	678	2,645	572	838	667
	증가율	9.1	13.6	10.9	4.4	5.1	7.2
	구성비	6.2	6.5	6.5	6.1	6.9	6.2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	보험료	908	818	3,573	920	745	904
	증가율	-2.0	2.1	-7.3	-2.5	-17.5	-0.4
	구성비	9.1	7.9	8.7	9.9	6.2	8.4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보험료	604	610	2,440	515	785	636
	증가율	4.5	8.7	6.4	2.6	8.4	5.3
	구성비	6.0	5.9	6.0	5.5	6.5	5.9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보험료	432	590	2,062	265	819	596
	증가율	20.3	24.2	18.0	-8.0	8.9	38.0
	구성비	4.3	5.7	5.0	2.8	6.8	5.5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보험료	324	318	1,768	245	993	352
	증가율	20.9	25.7	13.3	0.4	12.6	8.6
	구성비	3.2	3.1	4.3	2.6	8.2	3.3
주택담보 대출 신용보험	보험료	220	228	885	182	209	225
	증가율	-10.6	-11.6	-12.4	-12.5	-8.7	2.3
	구성비	2.2	2.2	2.2	2.0	1.7	2.1
기타 특종	보험료	1,045	1,176	4,397	995	1,232	1,070
	증가율	0.4	6.8	3.6	-2.7	6.9	2.4
	구성비	10.4	11.3	10.7	10.7	10.2	9.9
합계	보험료	10,004	10,409	40,974	9,308	12,086	10,754
	증가율	6.1	8.6	5.9	2.3	5.4	7.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표 36〉 호주 손해보험의 보유손해율과 사업비율

(단위: %)

구분 <sup>2)3)</sup>		FY2018		FY2019		
		3/4	4/4	1/4	2/4	3/4
가계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49	80	80	50	54
	사업비율	28	25	28	26	28
	합산비율	76	105	108	76	81
개인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70	83	70	71	68
	사업비율	20	21	20	18	21
	합산비율	90	103	90	89	89
기업성 재산보험	보유손해율	39	87	88	65	47
	사업비율	40	38	41	39	36
	합산비율	79	126	130	104	83
상업용 자동차보험	보유손해율	66	74	73	66	64
	사업비율	26	24	25	25	25
	합산비율	92	97	98	91	89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	보유손해율	91	34	102	48	99
	사업비율	9	10	10	11	12
	합산비율	101	44	112	59	111
일반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보유손해율	62	60	58	81	76
	사업비율	27	30	30	27	31
	합산비율	90	90	88	108	107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보유손해율	61	66	83	68	75
	사업비율	16	13	20	20	22
	합산비율	77	79	103	88	98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	보유손해율	84	100	101	89	106
	사업비율	15	17	16	18	14
	합산비율	99	117	117	107	120
주택담보 대출 신용보험	보유손해율	36	46	46	49	44
	사업비율	10	9	11	11	12
	합산비율	46	54	57	60	56
기타 특종	보유손해율	50	49	52	54	51
	사업비율	41	39	40	38	42
	합산비율	91	88	91	92	93
합계	보유손해율	62	74	77	63	66
	사업비율	25	24	25	24	25
	합산비율	87	98	102	87	92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호주 APRA

〈자산운용〉

■ FY2019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운용자산은 전분기 603억 달러에서 599억 달러로 감소함

○ 2019년 3분기 기준 채권형 운용자산이 손해보험 운용자산의 7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채권형 운용자산에 이어 간접투자자산의 비중은 17.9%, 대출채권은 3.4%, 주식형 자산 2.3%, 부동산 0.2%임

■ FY2019 3/4분기 손해보험의 자산운용수익률은 4.8%로 전년도 3분기 대비 1.4%p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직접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은 4.7%이며,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수익률은 5.2%로 나타남

〈표 37〉 호주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sup>

(단위: AUD 백만, %)

구분 <sup>2)</sup>	FY2018				FY2019					
	3/4		4/4		1/4		2/4		3/4	
	금액	구성비								
채권형 운용자산	43,436	74.2	44,165	74.8	45,646	75.9	45,528	75.5	45,241	75.4
- 현금 및 예금	4,364	7.5	4,391	7.4	4,573	7.6	4,027	6.7	4,171	7.0
- 회사채	14,062	24.0	14,276	24.2	14,978	24.9	14,803	24.6	14,118	23.5
- 국채	15,114	25.8	15,434	26.1	15,585	25.9	15,747	26.1	15,871	26.5
- 기타 유가증권	9,896	16.9	10,064	17.0	10,510	17.5	10,951	18.2	11,080	18.5
주식형 운용자산	1,408	2.4	1,477	2.5	1,448	2.4	1,460	2.4	1,407	2.3
- 상장 후순위 채권	265	0.5	277	0.5	279	0.5	279	0.5	280	0.5
- 비상장 후순위 채권	308	0.5	302	0.5	276	0.5	245	0.4	238	0.4
- 상장주식	775	1.3	826	1.4	819	1.4	862	1.4	816	1.4
- 비상장주식	60	0.1	72	0.1	74	0.1	73	0.1	73	0.1

〈표 37〉 계속

(단위: AUD 백만, %)

구분 <sup>2)</sup>	FY2018				FY2019					
	3/4		4/4		1/4		2/4		3/4	
	금액	구성비								
간접투자자산	11,184	19.1	10,665	18.1	10,707	17.8	10,944	18.2	10,760	17.9
- 현금 및 예금	1,162	2.0	902	1.5	1,209	2.0	1,784	3.0	1,036	1.7
- 채권	6,716	11.5	6,613	11.2	6,132	10.2	5,832	9.7	6,381	10.6
- 주식	1,914	3.3	1,732	2.9	1,959	3.3	1,932	3.2	1,960	3.3
- 부동산	929	1.6	961	1.6	950	1.6	935	1.6	918	1.5
- 기타	463	0.8	457	0.8	457	0.8	460	0.8	465	0.8
부동산	104	0.2	105	0.2	112	0.2	111	0.2	113	0.2
대출채권	1,953	3.3	2,197	3.7	1,796	3.0	1,800	3.0	2,038	3.4
기타자산	458	0.8	446	0.8	451	0.7	450	0.7	441	0.7
운용자산	58,544	100.0	59,055	100.0	60,158	100.0	60,294	100.0	59,999	100.0
투자수익률	3.4	-	2.5	-	7.8	-	7.1	-	4.8	-
- 직접투자수익률	3.1	-	3.7	-	7.1	-	6.9	-	4.7	-
- 간접투자수익률	4.9	-	-2.5	-	11.0	-	8.1	-	5.2	-

자료: 호주 APRA

## 〈손해보험 실적〉

■ FY2019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8억 달러를 기록함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에 비해 8.8%p 감소한 13.6%를 기록함

○ 자본은 239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0% 감소한 반면,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0.5% 감소한 1,140억 달러를 기록함

〈표 38〉 호주 원수손해보험회사 실적

(단위: AUD 백만, %)

구분		FY2018			FY2019		
		2/4	3/4	4/4	1/4	2/4	3/4
당기순이익	금액	1,415	970	170	555	1,332	821
	증가율 <sup>1)</sup>	-0.1	13.3	-81.0	34.4	-5.9	-15.4
자본	금액	24,374	23,940	23,163	23,245	24,349	23,866
	증가율 <sup>2)</sup>	4.8	-1.8	-3.2	0.4	4.7	-2.0
총자산	금액	109,319	108,388	110,421	111,425	114,629	114,017
	증가율 <sup>2)</sup>	2.7	-0.9	1.9	0.9	2.9	-0.5
자본이익률 <sup>3)</sup>		23.8%	16.1%	2.9%	9.6%	22.4%	13.6%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3) 연율화 수치임

자료: 호주 APRA

## 조사 개요 및 출처

- 호주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 퇴직연금(Superannuation),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다룸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호주의 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 호주의 생명보험상품은 소득보장체계<sup>18)</sup>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소득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65세 이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민간 소득보상상품을 통해 영구적·일시적으로 소득을 보장받음
  - 개인연금도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개인연금 보험료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음
    -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사용자가 납부한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분류됨
    - 퇴직연금의 사용자 법정기여율은 9.5%(2020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사용자의 법정기여율이 12%까지 상승할 예정임
- 본고에서는 호주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호주 APRA는 생명보험의 신계약 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만 나타냄
    - 호주는 90년대부터 저축성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아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보장성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18)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3층 체계(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  
2017-4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력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월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호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중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중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운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 이슈보고서

---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 조사자료집

---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 간행물

---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KIRI 포커스 모음집</li> <li>· KIRI 이슈 모음집</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KIRI 포커스 모음집</li> <li>· KIRI 이슈 모음집</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li>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KIRI 포커스 모음집</li> <li>· KIRI 이슈 모음집</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2020년 봄호 (통권 1호)

---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등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글로벌보험센터(☎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